

# 행재

AIR FORCE MONTHLY



공군 최초의 자매 보라매

강은미(2학년 생도), 강정미(1학년 생도)

1999

3

통권 제249호

공군본부

## C O N T E N T S

칼럼	제2건국 운동과 21세기의 준비	4
공군은 지금		6
경제 칼럼	작지만 큰 나라들	8
FOCUS	3·1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길	10
1일 3선	남을 돕자	12
생각해 봅시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군인	14
한문으로 배우는 충효	진충보국(盡忠報國)	15
취미의 세계	우표 속에 그려진 항공기 발달사	16
항공기 열전	세계의 하늘을 누비는 허큘리스 C-130	19
이것이 공군 작전	공중급유 작전과 탐색 및 구조작전	20
기획 특집	한눈으로 보는 세계 항공기 발달사	22
마음따라 가는 길	제주도, 그곳에서 바라보는 우리 공군의 미래	26
이달에 만난 사람	"종이 비행기에 꿈을 실어 보내지요!"	30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공군 장병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참여	31
	군인 자녀들 꽃동네 봉사 활동	31
I Love Air Force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의 '재상 사는 이야기'	32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난 뒤...	34
<b>기상 전망대</b>	3월에는 '부림'을 깨는 마음으로	35
<b>공군을 본다</b>	'99년은 신뢰받는 21세기형 강한 공군 육성 기반 강화의 해	36
<b>캠페인</b>	강인한 체력은 공군의 전투력과 직결	40
<b>Green Air Force</b>	유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41
<b>Air Power</b>	항공 전략 사상과 항공력의 교훈	42
<b>정보 비행</b>	눈앞에 다가온 '원자력 로켓 시대'	44
<b>나의 생각 나의 느낌</b>	밀레니엄과 세기말 신드롬	46
	혹한기 훈련의 멋진 추억	48
<b>마음으로 읽는 글</b>	아들과 함께한 여행	49
<b>신간 안내</b>	경제는 시스템이다 外 1권	51
<b>이달의 공군 역사</b>	3월의 공군 역사	52
<b>기지 소식지 No. 1</b>	병장이 되고서	53
<b>알립니다</b>		54
<b>포토 에세이</b>	공군 장병의 봉사 활동	55

### 참모총장 지휘방침

- 완벽한 전비태세
- 실전적 교육훈련
- 효율적 자원관리
- 참신한 공군문화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박춘택

“우리가 아직도 뿌리뽑지 못하고 있는 악습과 폐습을 깨끗이 근절하고,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실천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는’ 공군상을 확립하고, 우리 스스로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 ‘국민의 공군’이 되도록 합시다.”

「월간참모회의」 훈시 중에서



우 리 에  
 게 '제2의 건국' 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제2의 건국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혁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이다.

### 모래성처럼 무너진 압축 성장의 신화

제2건국 운동이 태동하게 된 계기는 1997년말 한국 사회가 맞게 된 국난 상황이 잘 말해주고 있다. 사실상 국가 파산 사태를 몰고 온 1997년말의 외환 위기와 IMF 체제의 등장은 압축 성장으로 표현되는 파행적 성장제일주의와 관치 경제 시스템이 몰고 온 필연적 결과였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추동해온 개발 전략과

관리 체계가 효율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20세기형 노후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을 암시해 준다.

우리는 그 동안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빵을 위해서는 자유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기본 철학이었고, 이 논리는 성장 분위의 산업화 정책을 통해 실천적으로 수용되었다. 그 결과 권위주의와 관치 경제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대체했고, 편법과 부정에 의탁하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원칙과 도덕성에 기초한 정상적인 접근 방법을 밀어냄으로써, 수단이 나쁘더라도 목적인 성취하면

승 자가  
 되는 가치 전도 현상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역기능이 누적되면서 한국 사회는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이 감퇴되는 기능 저하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한보 사태 등 잇달아 터진 각종 사건들이 이 점을 예고해 주었다. 그러나 정부 당국과 국민은 과거의 성취감에 매몰되어 진지한 변화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급기야 외환 위기를 맞아 그동안 믿어왔던 성장 신화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 21세기 시민 의식의 세계화

제도의 기능성과 수단의 합리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면 된다' 는 사고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한마

시대적 적합성을 갖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국가의 기틀을 바로세우려는 제2의 건국 운동은 올바른 미래 비전이요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50년 혹은 100년을 내다보는 신문명 운동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디로 '기본을 제대로 갖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오늘의 위기가 선진 대국으로 가는 쓴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질서부터 개관한다면 WTO 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국민 국가의 벽이 급속도로 무너지면서 세계 시민 사회(Global Civil Society)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다. 세계 시민

사회는 경쟁의 사회이자 협력의 사회요, 민족 단위의 문화와 규범을 초월하는 새로운 문화 양식을 요구하는 사회이다. 문명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의 태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보 혁명으로 대변되는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근대 공업 사회가 막을 내리고, 지식이 자본으로 등장하는 고도 지식 사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IMF 체제에 들어가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대전환의 와중에서 그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안목과 가치관이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적응(대처)

하려면 폐쇄적 민족 의식을 지양하고 세계주의적인 시각을 길러야 한다. 서구 선진 사회처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병행시켜 동양적 유교 가치의 왜곡에 바탕을 둔 권위주의 요소들을 퇴치하고, 세계 공통의 보편 가치들을 우리의 가치 체계 속으로 수용함으로써 문화적 편협성을 극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의식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만성화된 노사 갈등과 지역 갈등, 배타적 이기주의와 불신 풍조를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기 위해, 그리고 날로 극심해지는 물질주의와 배금 사상, 빛나간 소비 풍조와 만연된 부패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제2건국 운동을 통해 정신혁명을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 구조를 청산하고 민족 통일의 지평을 새롭게 개척하려면 나라를 새로 건설한다는 결의로 남북 관계의 틀을 통일 지향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사회를 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하고 안보 논리와 통일 논리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민족'과 '이념'의 갈등 관계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점에서도 제2건국 운동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100년을 내다보는 신문명 운동

미래학자 폴 케네디(Paul Kennedy)가 강조했듯이 다음 세기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제대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런 나라만이 상대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대적 적합성을 갖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국가의 기틀을 바로세우려는 제2의 건국 운동은 올바른 미래 비전이요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50년 혹은 100년을 내다보는 신문명 운동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2건국 운동은 역사의 부정이나 단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승계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또 혁명의 논리가 아닌 개혁의 논리에 근거한다. 제1건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제2건국 운동의 기본 입장이다. 상해 임정으로부터 연유되는 건국 이념의 토대 위에서 산업화의 논리와 민주화의 논리를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제2건국 운동의 지향성이다. 따라서 제2건국 운동이 지향하는 새로운 역사는 승계의 역사인 동시에 창조적 역사인 것이다. ☞



대한민국 공군 50주년  
REPUBLIC OF KOREA AIR FORCE 1949-1999

# R.O.K.A

참모총장 공군사관후보생  
101기 임관식 참석 시상 수여 (2. 3)



참모총장 설맞이 성매요양원 방문  
위문품 및 성금전달 (2. 13)



참모총장  
군수사령부 순시 (2. 10)

# er Force



3107부대 주요 기관장  
부대 견학 및 지역 발전 논의 (2. 5)



공군사관학교 51기 사관생도 입학식 (2. 20)



3579부대 의무대대 인근 지역 주민  
무료 진료 실시 (2. 3)



3591부대 육·공군 동계 육한기  
활주로 피해 복구 합동 훈련 실시 (2. 4)



5315부대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2.3 ~ 2.4)

# 작지만 크 크 나라들

서울대 부총장 송 병 략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 3대 강 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들 나라의 장점을 잘 취하고 충분히 활용하여 1인당 소득에서 이들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스위스와 벨기에의 합금형 국가'를 지향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계속 키워온 결과 1인당 소득에서 이웃 나라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를 크게 앞질렀을 뿐 아니라 이제는 손꼽히는 선진국이 되었다.

## 튼튼한 경제 시스템으로 앞서 가는 대만

대만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대만의 각료들은 대부분 기술과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학생들도 선진국에 가서 법이나 정치학보다는 전자나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현지의 첨단 기술 회사에 들어가 많은 경험을 쌓았다. 이들은 고국에 돌아와 대만의 전자 및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주역들이 되었다. 최근까지 대만의 적지 않은 전자 업체들이 한국을 앞섰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토에서 모택동 정권에 게 밀린 장개석 정권이 대만에 오자마자 심혈을 기울

인 것이 경제 시스템을 튼튼하게 하는 일이었다. 어느 대만 정부 각료는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쫓겨난 것은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제 시스템의 붕괴로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이 늘고 분배마저 불균형한 상태에서 소득이 줄어들자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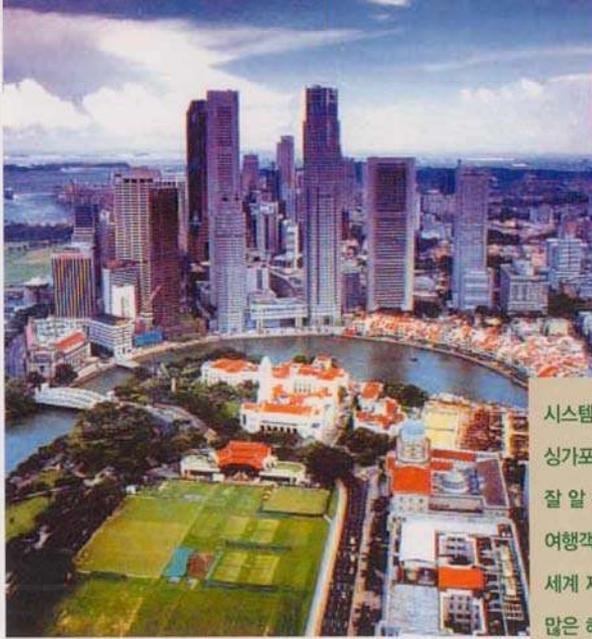
당시 대만의 소득 수준은 필리핀보다 낮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밀입국했으나, 지금은 거꾸로 필리핀 사람들이 대만에 밀입국하려고 인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대만의 경제 규모는 필리핀의 15배나 된다.

## 싱가포르 함은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많은 여행객들이 싱가포르 항공을 세계 제일의 항공사로 꼽고, 많은 해운업자들이 싱가포르 항만을 세계 제일의 항만으로 꼽는다. 또한 세계의 많은 도시 계획 전문가들이 싱가포르를 주거 환경 시설이 가장 잘된 나라로 꼽는다고 한다.

아무리 세계적인 항구도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많은  
여행객들이 싱가포르 항공을  
세계 제일의 항공사로 꼽고,  
많은 해운업자들이  
싱가포르 항만을 세계  
제일의 항만으로 꼽는다.



화물선이 들어와 신고 온 화물을 내리고 새 화물과 음식물을 싣는 데는 보통 며칠이 걸린다. 그러므로 이들 항구에는 선원들을 위한 숙박 시설과 술집 골목 등이 잘 발달되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싱가포르에는 아무리 큰 배가 들어오더라도 화물을 내리고 싣는 데 평균 1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선원들을 위한 숙박 시설과 술집 골목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싱가포르 항은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서 아주 능률적으로 운영된다.

싱가פור는 정보 통신 시설 분야 세계 1위, 행정 서비스 자동화 세계 1위, 노동자의 질 세계 1위, 국민 저축률 세계 1위(45%), 디스크 드라이브 생산 세계 1위, 그리고 세계 1위의 VCR 생산 공장 등을 자랑하고 있다.

싱가פור는 인구가 300만

밖에 안되지만 국민들이 마실 물도 수입하고 동물원의 새도 수입한다. 심지어 건설 업체도 수입하고, 회사 사장도

수입한다. 그리하여 수입, 수출 모두 국민총생산(GNP)을 넘고 있다. 또한 국토 면적은 623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다국적 기업과 그 생산 공장들을 이미 오래 전에 623개 이상 유치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도 자체의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잘 개발하여 정착시킨 덕분에 경제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 경제 전쟁 시대를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

그러나 이와 반대로 소비에트 연방이 없어진 것이나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붕괴된 것은 모두 경제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금세기 초만 해도 10대 선진국에 꼽혔던 아르헨티나

와 2차 대전 직전까지 세계 7대 공업국의 하나였던 체코의 소득 수준이 한국보다 못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경제 시스템의 문제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경제 시스템이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정치가들이 인기 영합식 정책을 마구잡이로 편 탓에 얼마 전까지도 경제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다. 이처럼 경제 전쟁 시대에 경제 시스템이 약한 나라는 패할 수밖에 없다. 성공하는 나라는 성공적인 경제 시스템이 있는 나라인 것이다. ☛

### 3. 1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길



####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대한 독립 만세'

1910년 국권 침탈 후,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전국토의 40%를 강제 점유하는 등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고, 헌병 경찰 통치로 민족 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무단 정치를 강행했다. 이에 우리는 한일합방 이후 지속적으로 애국계몽운동과 무장독립항쟁을 전개하여 국권 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와 1919년 2월 8일 동경 유학생들이 전개한 '독립 선언'에 고무되어, 마침내 3월 1일 손병희, 한용운을 비롯한 민족 대표 33인의 주도로 거족적 독립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애국 지사의 지도 아래 종교와 신분을 망라한 각계 각층이 독립의 한뜻으로 뭉쳐, 최남선이 기초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독립 선언서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게 했던 것이다. 그 가운데는 어린이, 거지, 기생까지 주도한 만세 운동도 있었다. 또한 만주, 블라디보스토크와 미주 지역에 흩어져 살던 한국 교포들의 만세 운동도 있었다. 당시 2천만 동포라 할 때, 202만여 명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니, 교통과 통신의 불편을 고려하더라도 한 집에 한 사람은 만세 운동에 나섰던 셈이다.

#### 일제 35년간의 출기찬 저항 운동

3·1운동은 국권의 회복과 개인적 자유를 얻기 위한 비폭력 시민 운동이었으나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이에 독립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다음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실력으로 당당히 일제와 맞서기 위해 만주 각지에 독립군을 조직·운영하게 되었던 것이다.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만세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근대적 민족 의식을 싹틔우는 계기를 마련하여 일제 35년간 내내 출기찬 저항 운동을 전개하는 원

동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일제로 하여금 무단 정치를 포기하고 명분만이라도 문화 정치로 전환케 하여 교육 기관 설립,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간지 창간을 허용케 함으로써 독립 운동의 정신적·내면적 충실을 기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3·1 운동은 중국의 5·4 운동 등 비폭력 식민지 독립 운동에 훌륭한 모범 사례가 되기도 했다.

### 민족 역량을 하나로 모았던 3·1 운동의 교훈

우리는 지금 6·25 이후의 최대 국난이라고 하는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기본을 바로세우려는 시점에 있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말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제대로 하자는 것이 기본을 바로세우는 것이다. 독립을 이루기 위해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았던 3·1 운동의 교훈을,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 자리에서 되살려야 할 것이다. 주권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은 반드시 우리 힘으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다.

우리는 고귀한 3·1 호국 영령 앞에 다짐하듯 튼튼한 국방으로 다시는 이 땅을 외적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군대로서 민족 번영의 미래를 안보로써 뒷받침하겠노라고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독립을 이루기 위해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았던  
3·1 운동의 교훈을,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 자리에서 되살려야 할 것이다

사람은 왜 사느냐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보라, 풀은 꽃을 피우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도 이상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다짐하였다.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더 한층 강(剛毅)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의 겨레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雨露)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그 강(剛毅)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했다.

- 윤봉길 의사 어록



# 남을 돕자

## 一日三善

우리 공군은 지난해부터 '1일 3선 운동'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그 세부 사항 중의 하나로 '남을 돕자'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조금만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모두가 신바람나는 부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TV 방송사에서는 올해 '칭찬합시다'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 그들의 미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 주인공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이웃과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면 나의 작은 힘이 보탬이 될까?' 하고 숨어서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하며 쑥스러워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은 더 큰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자신은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오히려 안타까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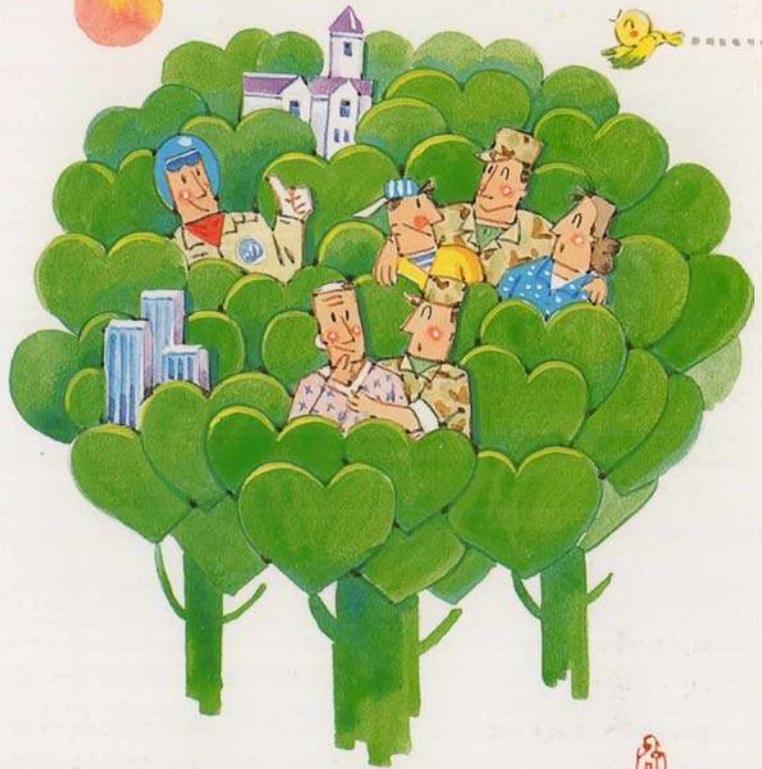
그들 중에는 소위 갑부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형편도 정말 어렵

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찾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IMF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근심과 걱정의 한숨 소리가 크게 들리는 이때에, 남을 돕기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에게 사람 사는 세상의 참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 국민 곁에서 사랑받는 군인상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을 버리고 남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인들이 가운데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국방일보 2면의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국방 시대'란을 보면, 어려운 지역 주민과 사회 복지 시설을 찾아 펼치는 봉사 활동을 비롯해 여러 가지 지역 활동에 동참해 도움을 주거나 부대 초청 행사와 각종 선행 등으로 민과 군이 하나되는 모습을 매일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제 군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평상시에도 늘 국민들의 곁에서 사랑과 신뢰받는 군인의



상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돕는다는 것은 이렇게 신문이나 TV에 날 만한 큰 일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동료나 부대원 사이에 업무와 관련해서, 혹은 개인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때, 상대방은 고마움을 느끼고, 반대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어우러져 함께 생활해야 하고, 그 속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를 중시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 동료나 상관 혹은 부하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알아보고 성심껏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상대방은 나를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또한 나의 생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입니다.

### 작은 실천으로 아름다워지는 사회

우리 공군은 지난해부터 '1일 3선 운동'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그 세부 사항 중의 하나로 '남을 돕자'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조금만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모두가 신바람나는 부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마음과 행동이 부대 밖에서도 실천된다면 더욱 더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군이 될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관심을 갖고 도와

준다면 서로서로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큰 일을 만나도 어렵지 않게 협력하여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잘살 수 있는가?' 하는 궁리보다는 '내가 나의 동료와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작게나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보다 성숙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요, 자신의 작은 실천으로 우리 사회는 그만큼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

8전비 소위 김도형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군인

21세기와 한국의 위상'을 논할 때마다 "우리 나라가 명실상부한 21세기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서 착실한 준비와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임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금년도의 국정지표로 '국정 개혁의 강화'와 '경제 재건의 시작'을 내세운 것도 우리가 처한 오늘의 시대 상황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21세기 한민족의 도약'을 근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부문의 개혁은 국민 모두의 예외 없는 동참을 대전제로 한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의식 개혁을 필수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뒷받침하고 있는 국정 개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속성이 따지고 보면 21세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의식과 제도 개혁을 밑바탕에 깔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도와 법령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뼈를 깎는 변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동참하겠다는 의식 개혁의 선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좋은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근본적으로 고쳐나감으로써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제2의 건국 정신이 불길처럼 확산되어야 할 시점이다. 기본과 원칙이 존중되고 질서와 규범이 지켜지는 사회, 겸손과 친절, 양보와 미덕이 넘쳐흐르는 사회를 이룩하자는 제2의 건국을 위하여 우리 공군이 해야 할 일은 다름아니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군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기본으로 돌아가 '할 것을 제대로 하는' 임무 전념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한 일본인이 쓴 <한국, 한국인 비판>에는 교통 질서와 같은 작은 일도 평소에도 제대로 지켜야 기본을 바로세울 수 있고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군인의 기본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나라와 겨레가 튼튼한 국방의 기본 위에 굳건히 재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우리 공군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영공 방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공군본부 정훈과

기본과 원칙이 존중되고 질서와 규범이 지켜지는 사회,

겸손과 친절, 양보와 미덕이 넘쳐흐르는 사회를 이룩하자는

제2의 건국을 위하여 우리 공군이 해야 할 일은 다름아니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군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 진충보국(盡忠報國)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 담 구

盡

다할 진

(총14획, 皿부수)

忠

충성 충

(총8획, 心부수)

報

값을 보

(총12획, 土부수)

國

나라 국

(총11획, 口부수)

12세기 초엽 여진족이 세운 금(金)나라는 요나라를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 중원에 자리잡고 있던 송(宋)나라까지 침략해 들어갔다. 이때 부패가 만연했던 송나라는 버틸 힘을 잃고 마침내 수도 개봉이 함락되고 황하 이북의 땅이 모두 금나라에 점령당했다. 이렇게 되어 휘종과 그의 아들 흠종마저 포로로 잡혀서 북방으로 끌려갔다. 송나라는 사실상 멸망한 것이다. 이때까지 역대 168년간을 북송이라 하고, 흠종의 동생인 고종이 강남으로 난을 피하여 입안(항주)에 도읍을 정하여 송나라를 이은 뒤부터를 남송이라 한다.

당시 송나라에는 악비(岳飛)라는 명장이 있었다. 그는 무예와 병법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우국 충정이 남달랐다. 그러나 당시 조정의 중신들은 대부분 어리석고 무능한 데다 놀기를 좋아해서 나라일은 팽개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다. 이런 작태를 보면서 악비는 탄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현명하고 대의에 투철했던 악비의 어머니는 아들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보겠다는 결심을 알고 매우 기뻐하며 격려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그녀는 악비가 나라를 걱정하면서 한숨짓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남들은 어떻게 하든지 너는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내가 네 등에 명심해야 할 글귀를 새겨주마.”

악비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만큼이나 효심도 깊었기 때문에 즉각 웃옷을 벗고 어머니에게 등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악비의 등 위에 ‘진충보국(盡忠報國)’ 네 글자를 정성들여 새겨주었다.

진충보국이란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다.

악비는 기회 있을 때마다 복벌을 주장하며 빼앗긴 국토를 수복하자고 외쳤지만, 금과의 화의를 주장하는 간신 진회(秦檜)의 모함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때 악비의 나이 39세. 진회가 악비에게 모반죄를 자백하도록 강요했을 때 악비는 말없이 웃옷을 벗어 등을 보여주었다. ‘盡忠報國’의 문신은 그때까지도 선명히 아로새겨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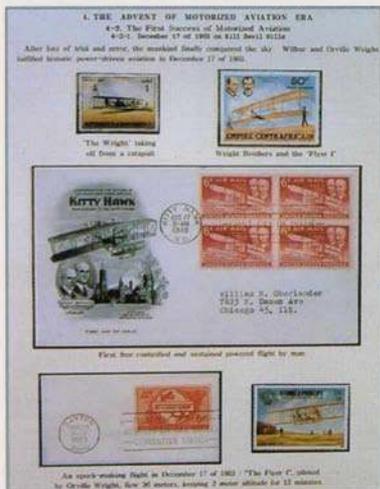
악비의 어머니가 아들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여, 충성을 다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진충보국’이라 하게 되었다. ㉠



# 우표 속에 그려진 항공기 발달사

미국은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가 키티호크의 킬 데빌 언덕에서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였지만 항공 산업의 종주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불과 13년 뒤인 1717년 4월 미국이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을 때에는 1급 군용기가 없어 유럽 연합국의 전투기를 사들여 올 수밖에 없었다.<그림1, 그림2>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미육군이 비행기의 잠재 능력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탓도 있었고, 또 미의회에서 항공 전력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한 탓도 있었다. 그러



◁그림3> 라이트 형제의 최초의 동력 비행 실험

나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라이트 형제에게 있었다는 지적이다.<그림3>

## 대담한 모험가이자 재능있는 아마추어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의 비밀을 풀어낸 라이트 형제. 항공기 역사에서 그들의 이름을 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형 오빌과 동생 윌버. 미국을 일약 세계 항공 산업의 본산으로 만든 그들이 어찌하여 미국 항공 산업 발전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만 것일까?

우리는 라이트 형제를 일컬어 "상업적인 면에는 별 관심이 없는 대담한 모험가이자 재능



◁그림1> 인간의 하늘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화 속의 '미키루스'



◁그림4> 프랑스 아폴소왕 앞에서 시험비행을 하고 있는 라이트 형제



◁그림5> 특허권을 둘러싸고 라이트 형제에게 제소 당했던 앙리 파이망



◁그림6> 라이트 형제와 라이벌 관계였던 글렌 커티스와 커티스기

있는 아마추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인쇄소를 경영할 정도로 사업 감각도 있었고 자전거 매매업을 통해 비행 실험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도 마련했다.

비행 실험 초기에 숙제로 남아 있던 공중에서의 조종 성능 문제가 해결되자 항공 산업이 장래성이 있다고 보고 재빨리 산업화를 서둘렀다. 뿐만 아니라 라이트 형제는 동력 비행에 성공하기 9개월 전 이미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비행기 특허를 신청했다. 그 이듬해에는 프랑스와 독일에도 특허 신청을 했으며, 그후 유럽 여러 나라로부터 특허권을 따냈다.

1904년과 1905년에 걸쳐 비행 실험을 계속한 라이트 형제는 한 번 이륙하면 30분 이상 체공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개량되었으나 갑자기 공개적인 비행 실험을 중단하고 유럽으로 판촉 활동에 나서게 된다.<그림 4> 비록 특허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비행 기술이 더 노출되면 판로가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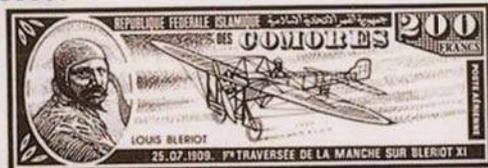
### 라이트 형제의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

한편 미국 내에서는 1908년 글렌 커티스가 '준 박'이라는 비행기를 제작함으로써 라이트 형제에게는 항공 분야의 라이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맞서 라이트 형제는 커티스를 상대로 비행기의 제작, 판매, 전시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그림 5> 5년에 걸친 지루한 법정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커티스는 비행기 제작과 조종 교육을 계속했지만 이 소송으로 인해 미국의 항공 산업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동일한 법적 행동을 했는데, 프랑스의 라이트사는 앙리 파야망, 루이 블레리오와 같은 프랑스 항공 분야의 선구자들을 제소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그림 6>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었고, 1914년 동생 월버가 죽고 나서야 대부분의 특허권 소송이 해결되었다. 많은 항공기 제작사들이 소송



<그림5> 라이트의 모델 B



<그림6> 세계 최초로 영불해협 횡단비행에 성공한 루이 블레리오와 '블레리오 II'



<그림7> 1차 대전 중 활약한 전투기 '스피드 VII'



<그림8> 제너라는 애칭의 커티스기 'JN-4'



<그림9> 2차 대전에서 맹활약을 한 미국의 머스탱

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사용료를 지불했지만 엄청난 액수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다. 나중에는 미국 정부와 미항공협회가 나서서 라이트 형제의 특허권을 사려 했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라이트는 항공 산업을 계속 주도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상황은 달랐다.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 성공으로 유럽은 한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나 얼마 안 가서 라이트 형제의 항공 기술에 필적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1909년에는 프랑스의 블레리오가 세계 최초로 자신이 제작한 단엽기로 영국 해협을 횡단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그림7> 같은 해 프랑스의 랭스에서 열린 세계 최초의 비행 대회에서 경쟁을 벌인 23대의 비행기는 대부분이 프랑스에서 제작된 것이었다. 경기에 참가한 라이트기는 3대로 이중 큰 상을 받은 미국인은 커티스뿐이었다.

### 유럽에 뒤처지고 만 미국의 항공 산업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그때까지도 라이트와 커티스의 모델에 의존해 있었는데 반해 유럽에서는 앞다투어 항공 무기의 개량과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1914년 프로펠러가 뒤에 붙어 있는 추진 프로펠러 방식 비행기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라이트식 비행기들을 폐기하고 견인 추진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그림8>

커티스도 이런 새로운 설계 방식을 채택하고 유럽형의 새로운 J모델을 개발하여 미해군에까지 판매망을 확장했다. 그뒤 그는 J모델을 기본 모델인 N모델과 혼합하여 N기를 생산했는데, 이 N기는 후에 미군의 수송기로 채택되었다. 전후에는 전국 순회 곡예 비행을 통해 '제니'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사랑을 받기도 했다. <그림9>

1917년 미국이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을 때 라이트 형제가 독점하고 있던 항공 산업은 마침내 종말을 고하게 된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항공기 제작사들이 서로 상대방의 특허권을 조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형제가 장악했던 미국의 항공 산업이 특허권 분쟁에 휩싸여 있는 동안 유럽은 놀랄 만한 발전을 거듭하였고, 1차 대전이 일어나자 미국은 성능이 더 우수한 유럽의 항공기를 역수입하기에 이르렀다.

성능이 뛰어난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이를 실전 배치하여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이미 때는 너무 늦어 있었다. 미국은 1차 대전 기간 동안 뉴퐁, 솅워드, 스패드 등 수천 대의 전투기를 유럽으로부터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림10>

###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 항공기

1918년 11월 전쟁이 끝났을 때 오빌은 "비행기의 발명은 더욱 무시무시하게 만들었다. 앞으로는 어느 나라도 감히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행기가 전쟁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은 2차 대전이 일어남으로써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항공기 역사상 불멸의 공헌을 했던 라이트 형제. 두 형제가 장악했던 미국의 항공 산업이 특허권 분쟁에 휩싸여 있는 동안 유럽은 놀랄 만한 발전을 거듭하였고, 1차 대전이 일어나자 미국은 성능이 더 우수한 유럽의 항공기를 역수입하기에 이르렀다. 1차 대전은 미국으로 하여금 긴 잠에서 다시 깨어나게 한 계기가 되었고, 2차 대전 당시에는 다시 선두 자리를 되찾게 되었다.<그림 11>

그러나 항공기의 발명이 전쟁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던 라이트 형제의 기대와는 달리 2차 세계 대전을 통해 항공기가 오히려 놀랍도록 무서운 위력을 과시하게 되었고, 항공기야말로 전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 되고 말았다. Ⓛ

대령 김 병 오

## 세계의 하늘을 누비는 허큘리스

# C-130(Hercules)

Hercules기는 한국을 비롯하여 현재 전세계 57개국에서 총 2,160여 대가 운용되고 있다.

### 주·야간 공수 및 침투 능력 보유한 수송기

미국이 1937년부터 운용해오던 C-47 수송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1950년대 초반에 설계된 Lockheed사의 C-130 Hercules 수송기는 2차 대전 이후 개발된 서방의 군용 수송기 중 가장 성공적인 항공기로서 1954년 8월 최초 비행을 하였고, 1956년에 양산형의 인도가 시작된 후 급속도로 미공군의 주력 전술 수송기가 되었다.

시제기인 YC-130은 레이더가 장착되지 않았으나 양산형인 C-130A는 기수 부분에 현재의 형태와 같은 돌출된 레이돔 속에 항법용 레이더를 장착하였다. C-130H의 경우 조종사와 부조종사, 항법사, 기내 정비사 등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며 155mm 곡사포, 또는 6대의 재급유 트레일러 등의 화물 수송이나 92명의 완전 무장 병력을 수송할 수 있으며, 동체를 연장한 C-130H 30기는 128명의 완전 무장 병력 수송이 가능하다.



### 앞으로도 유력 수송기로 운용될 전망

탑재된 주요 전자 장비는 2종으로 되어 있어 비상시 생존성을 증대시켰으며, 안전하고 정확한 비행을 위하여 AN/APQ-122(V) 탐색 및 기상 레이더, AN/APN-122(V)2 레이더 고도계, 5V-4 강하각 수신 장비, AN/ARN-97 공항 착륙 접근 보조 장비, AN/APN-147 도플러 항법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C-130은 임무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개조되었으며, 최근에는 미 공군 군수사령부의 C-130E를 대체하기 위한 C-130J가 운용중에 있다. 또한, 운영 유지를 위한 인적 요소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고, 항속 거리도 C-130H에 비해 40% 이상 증가시켰다. 앞으로도 C-130 계열은 지속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 주요 성능 및 제원

순항속도 : 556km/(300kts) 항속거리 : 2,160nm(4,002km) 실용상승고도 : 10,060m(33,000ft)

최대 상승률 : 579m(1,900ft) 최대화물탑재량 : 19,645kg(43,000lbs) 최대이륙중량 : 79,380kg(175,000lbs)



# 공중급유 작전과 탐색 및 구조작전

## 항공 작전의 융통성을 극대화시키는 공중 급유

공중 급유 작전은 체공중인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하여 항공기의 체공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공군력의 활동 영역을 증대시키는 작전이다.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항공력은 공중뿐 아니라 지·해상까지도 지배할 수 있으나, 한정된 체공 시간으로 그 역할 수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중 급유 작전은 이러한 제한을 해결함으로써 공군력의 특성인 융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공중 급유는 항속 거리뿐만 아니라 항속 시간 및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해주며, 보다 높은 침투 속도, 성공적인 이탈 및 귀환을 위한 여분의

연료를 갖게 해준다.

대규모 항공 작전 수행을 위하여 다수의 항공기에 대한 공중 급유시에는 장시간 동안 넓은 공중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 항공기 및 지대공 방공 무기 체계에 취약하다. 따라서 공중 급유 작전은 작전 기획 단계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이 긴밀하게 조정·통제되어야 하며, 적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거나 이를 적시에 거부할 수 있는 안전한 공중 공간을 확보하여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중 급유 작전은 급유기와 연료를 공급받는 항공기가 임무 수행중에는 기동이 불가능하므로 제한된 시간 내에 공중 급유를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공군은 공중 급유 작전을 통

하여 예비 기지로의 귀환 등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작전 지속 시간을 연장하며, 작전 영역 확대 및 무장 탑재 능력을 향상시킨다.

## 신속하고 안전한 구출을 위한 탐색 및 구조 작전

탐색 및 구조 작전은 조난당한 인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하는 작전으로, 실제 조난에 처해 있거나 잠재적으로 조난 가능성이 있는 인명이나 재산을 구조하기 위하여 지·해상 및 공중 장비와 특수 구조 팀을 운용하여 탐색하여 구조하고, 지정된 지점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 및 귀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탐색 및 구조 작전은 전·평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항공력은 공중뿐 아니라 지·해상까지도 지배할 수 있으나, 한정된 제공 시간으로 그 역할 수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중 급유 작전은 이러한 제한을 해결함으로써 공군력의 특성인 융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시 조난 항공기의 승무원을 주 대상으로 하며, 국가 주요 인사 및 특수전 전력의 복귀를 위해서 실시되나, 평시 자연 재난(풍·수해) 구조, 고층 건물 화재 인명 구조, 긴급 환자 공수 등의 임무도 포함된다. 탐색 및 구조의 기본 정신은 인도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탐색 및 구조 작전의 결과로 전투력을 보존하여 전투 효과를 증대하고 전투 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구조된 자원에서 제공되는 기술적인 자료와 새로운 정보 등을 획득한다.

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전투 요원, 항공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탐색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

탐색 및 구조 작전은 조난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진위를 판별해내는 활동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느냐가 성패 여부를 판가름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며, 구조 항공기의 생존성, 생존자의 무선 교신 상태, 적의 반격, 적에 대한 제압 화력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위험 상황하에서 적 중심 지역의 탐색 및 구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조기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천후 은밀 침투 능력과 적의 공중 및 지대공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항공기·선박 조난, 자연 재

난, 고층 건물 화재, 격오지·도서 지방 긴급 환자 발생 등은 항상 예기치 못한 때와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국가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군은 평시 훈련되고 장비된다.

공군은 탐색 및 구조 작전을 통하여 비행 승무원을 포함한 우군 요원이 위협으로부터 즉각 구조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부여하여 사기 및 전력을 극대화하고, 중요한 정보 자원을 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적의 잠재적 정보 근원을 제거하며, 조난 상태의 요원들을 구출하여 그들에게 다음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④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 한눈으로 보는 세계 항공기 발달사

항공기는 현대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세계 역사를 전쟁사로 파악하고, 군용기의 발달이 국가의 근대화, 산업화를 이룩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감안할 때, 군용 항공기 발달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하는 일은 학술적으로도 큰 의의를 지닌다.

### 이카루스, 다 빈치, 라이트 형제, 그리고...

인류의 하늘에 대한 꿈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에달루스와 이카루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레

오나르도 다 빈치의 항공기 스케치로 이어지고 몽골피에 형제의 기구에 의하여 현실화되었으며, 급기야 1903년 라이트 형제에 의해 최초의 동력 비행이 성공하게 되었다.

항공기들은 초창기부터 군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미 1890년대부터 열기구가 군용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 대전 때에는 Fokker Eindecker와 같이 전방에 기관총을 탑재한 전투기가 등장하여 본격적인 군용 항공기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였



51, 그리고 Heinkel He 178과 같은 최초의 제트기가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에 들어서는 F-22, 라팔 등과 같은 첨단 초음속 제트 전투기, AV-8과 같은 수직 이착륙기, B-2, F-117 같은 첨단 스텔스기에 이르기까지 항공기는 첨단 기술의 총아로 군림했으며, 항공 기술의 발전은 걸프전에서 드러난 것 같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 공군은 1914년 4월 17일자 <독립신문>을 통해 역설한 노백린 임시정부 군무총장에서 그 정신을, 그리고 1919년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창설된 독립군 공군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비록 단독 비행으로 일본 도쿄까지 날아가서 일본 천황궁 위에 폭탄을 투하 하겠다던 독립군 공군의 투혼은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하늘에 대한 사랑은 그후 중국 공군의 일원으로 하늘로 뛰어든 수많은 대한의 젊은이들과 1949년 10월 1일 창설된 우리 나라 공군을 통하여 계승 발전되고 있다.

## 하늘을 향한 인류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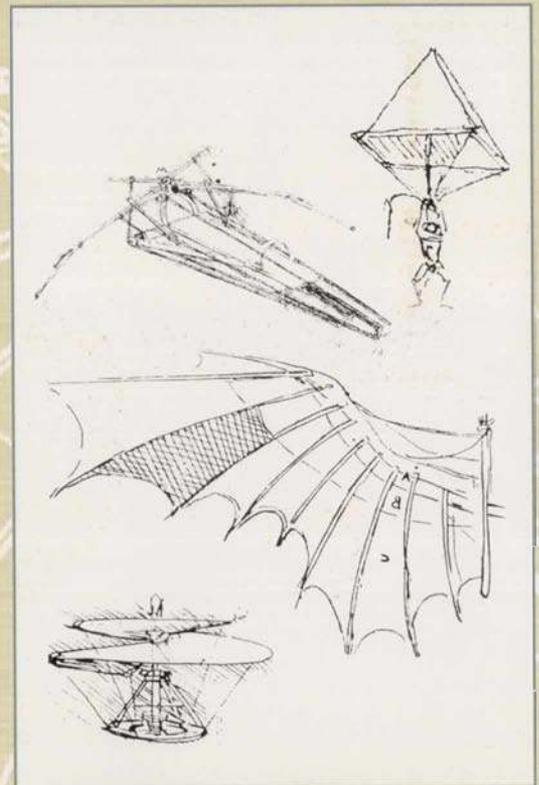
### 1. 신화와 전설 속의 비행

그리스 신화를 보면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날은 다에달루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의 이야기가 있다. 크레타 섬에 갇혀 있던 다에달루스는 인조의 날개를 만들어 섬을 탈출하였다. 그는 날개와 뼈대를 접착해놓은 밀랍이 열에 의해 녹지 않도록 태양에 가까이



나 비행의 자유로운 쾌감에 끌린 소년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말을 잊고서 점점 더 높이 날아올랐다. 곧 밀랍이 녹아서 날개가 떨어지고, 이카루스는 바다로 추락해 죽었다. 그후 그 바다는 그의 이름을 따서 '이카리아 해'라고 불리게 되었다.

### 2. 새의 날개를 꿈꾼 다빈치와 릴리엔탈



13세기의 사상가 로저 베이컨과 함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인간이 앉아서 기계를 돌려 적절히 만들어진 두 날개가 공기를 치는' 비행 물체를 착상하기도 했다. 르네상스의 대천재 레오나르도 다 빈치도 새가 날아가는 법을 연구하여 날개치는 톨, 낙하산, 헬리콥터를 고

안하였다. 특히 다 빈치가 1505년에 발표한 새에 관한 연구 논문은 후세의 글라이더나 동력 활공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고대 이래 비행에 대한 관심은 르네상스에 이르러 점점 강해졌다. 독일의 직물상 아들인 오토 릴리엔탈은 어릴 때부터 새를 동경하였다. 그러나 공상이었던 그는 동시에 합리적인 현실가였다. 그는 날개를 쳐서 날아가는 것을 단념하고 새처럼 활공할 것을 생각했다. 그리하여 1891년 최초의 글라이더 활공에 성공. 그후 잇달아 실험을 되풀이하여 글라이더를 개량해 나갔다.



### 3. 몽골피에 형제와 드 로지에의 열기구

몽골피에 형제는 1770년 중엽에 발행된 J. 프리스틀리의 <여러 가지 공기에 관한 관

찰>을 읽고 기구 실험에 착수하였다. 처음에는 종이로 만든 모형에 수증기를 채웠으나 기구에 구멍이 뚫려 수증기는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고, 1782년 11월 25일 드디어 작은 모형 기구 밑에서 짙을 태워 뜨거운 공기를 채움으로써 기구를 떠오르게 하였다. 그들은 다음해 6월 5일 아노네의 광장에서 공개 실험을 하여 지름 약 11m(체적으로는 약 800m<sup>3</sup>)의 기구를 약 2000m 상공까지 올렸다.

인류 최초의 비상자 드 로지에는 열기가 식으면 기구가 하강해 버리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구의 곤돌라에서 불을 피워 열기를 보충하는 것을 착상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러한 형식의 열기구가 '로지에'라고 불리게 되었다. 인류 최초로 하늘에 올라간 그는 또 공중 사고로 죽은 최초의 사람이기도 하였다. 1785년 6월 5일 그는 칼레에서 도버 해협을 횡단 비행하려다가 화재가 발생해 추락했던 것이다.

기구가 발명된 이후부터 19세기말까지 기구는 유일한 항공기였으며, 기구는 대기 속을 항행할 때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연구 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기상학의 진보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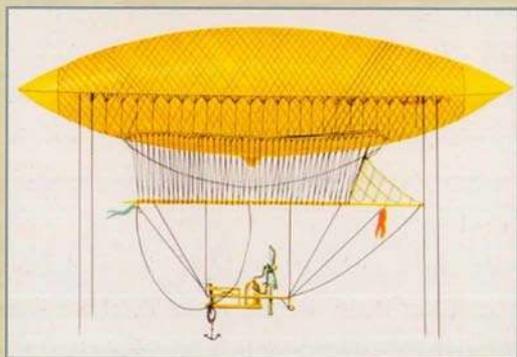
### 4. 샤를의 수소 기구

수소 가스는 1766년 경부터 알려져 있었으며, J. A. C. 샤를은 일찍이 수소 기구를 제작. 연구에 몰두하였다. 드 로지에와 다를랑이 첫 비행에 성공한 지 10일 후인 1783년 12월 1일에 샤를은 처음으로 비상하였다.

그후 19세기에는 기구에 의한 비상은 당시 시민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기구가 발명된 이후부터 19세기말까지 기구는 유일한 항공기였으며, 기구는 대기 속을 항행할 때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연구 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기상학의 진보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기구사들은 항법을 연구하고 모험을 시도하여 기구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지점의 탐험에 나섰으며, 기구에 의한 비행은 스포츠로서 애호를 받기도 했다.

### 5. 라프랑스 호의 성공

H. 지파르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비행선을 처음으로 설계하였다. 그의 비행선은 길이가 44m나 되었고, 3마력의 증기기관으로 프로펠러를 돌렸다. 이것은 1852년에 파리 교외에서 약 27km 거리를 시속 약 10km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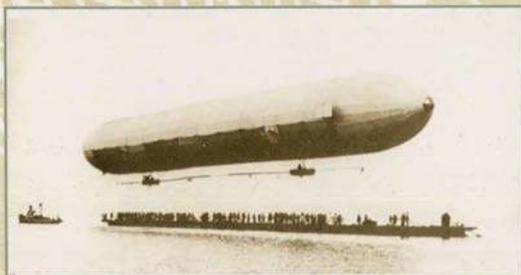


아갔다.

1883년 전지와 전동기를 사용한 프랑스의 티상디에 형제의 비행선을 거쳐 비로소 실용 비행선 라 프랑스 호가 출현했다. C. 르라르와 A. C. 클레브스에 의한 비단을 바른 비행선은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제어 성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대로 만든 곤돌라를 매달았다. 라 프랑스 호는 8마력의 전동기와 특별히 가벼운 전지를 갖추어, 1884년에 파리 근교에서 약 8km 거리를 시속 23km로 날았다.

비행선은 1900년경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건조되었다. 브라질 사람인 A. 산토스-뒤몽은 1898년부터 파리에서 가솔린 엔진을 사용한 14대의 비행선을 만들어 갖가지의 비행 기록에 도전, 하늘의 모험자로서 명성을 날렸다. 또한 독일의 다비트 슈바르츠는 1897년 16마력의 다이올러 엔진(가솔린 엔진)을 싣고서 외각이 알루미늄인 모양이 변하지 않는 최초의 경식 비행선을 등장시키기도 하였다.

### 6. 꼬자 백작 체펠린의 경식 비행선



1874년경 독일의 체펠린 백작은 슈테판의 '세계 우편과 비행선 항행'이라는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고 대형 비행선을 구상하였으며, 국민으로부터 성금까지 받아가며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1900년 길이 128m, 체적 11300m<sup>3</sup>의 경식 비행선 LZ1을 하늘로 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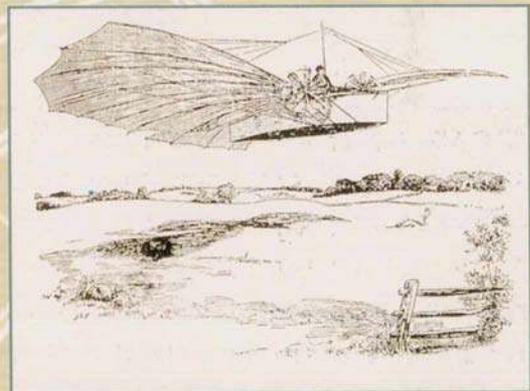
앞·뒤 두 선실에는 각각 16마력의 엔진이 부착되어 시속 약 32km의 속력을 냈다. 1908년에는 스위스의 루체른까지 12시간의 비행에 성공했다. 독일군은 제1차

세계 대전에 체펠린 비행선을 전략 폭격에 사용하여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 7. 힌덴부르크 호의 최후

힌덴부르크 호는 독일과 미국 사이에 취항, 1936년 한해 동안 10회 비행하여 1002명의 승객을 실어날랐다. 그러나 이듬해 수소 가스에 불이 붙어 파괴되었으며, 항공 여객 수송 사상 최초의 사망 사고로서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LZ130호는 수소 가스가 아닌 헬륨을 채워 대서양 항로를 날아다니도록 되어 있었으나 미국과 독일 관계가 악화되어 미국이 헬륨 수출을 거부함으로써 체펠린 백작 호는 수소 가스를 채워 실연 비행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것이 곧 체펠린 비행선의 사실상의 종말이 되었다.

### 8. 구스타프 화이트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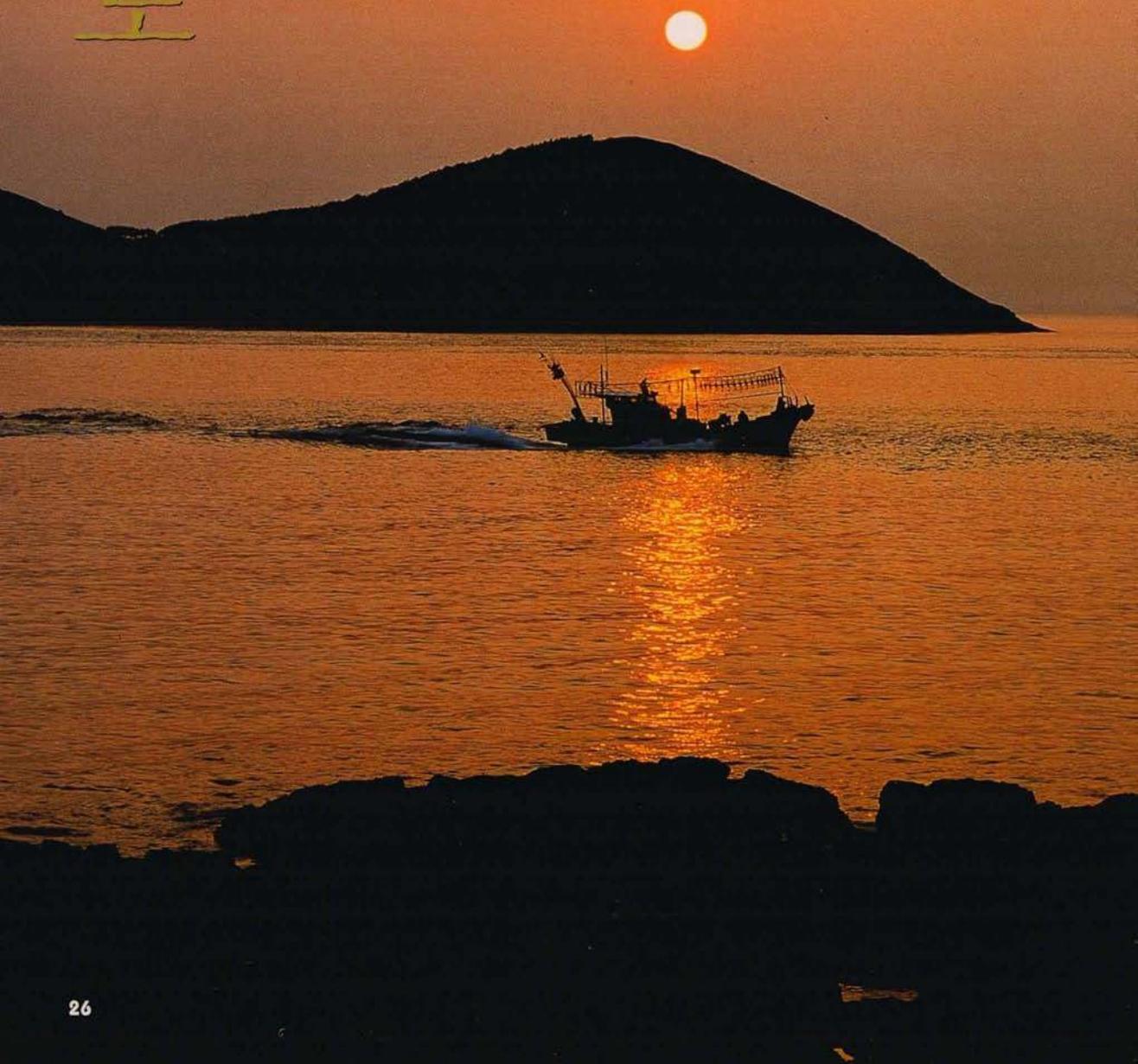


몇몇 항공사학자들은 라이트 형제보다 2년 4개월 앞선 1901년 8월 14일에 독일계 미국인 구스타프 화이트헤드(Gustav Whitehead, 1874~1927)가 코네티컷 주의 페어필드에서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했다고 믿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지 않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호 계속)

공군박물관장 김 영 주

# 제주도

그곳에서 바라보는 우리 공군의 미래





제주도 차귀도에서 바라본 낙조

넓게 펼쳐진 초지와 크고 작은 '오름' 들, 평화로이 일렁이는 푸른 바다. 시멘트와 벽돌을 대신해서 날브러져 있는 못생긴 돌들, 마음속 찌꺼기를 모두 날려버릴 듯이 불어제끼는 바람. 예로부터 돌,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도(三多島)라 불렀던 곳. 관광지 개발로 인해 옛 정취는 많이 퇴색해 버렸지만, 곳곳에 태고의 신비와 순박함이 살아 숨쉬는 곳. 그 발생 유래를 찾기 어려운 방언으로 인해 언어 소통이 조금은 어렵기도 하지만,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누구나 동경하는 환상의 섬임에는 틀림없다.

### 한국 현대사의 현장, 제주도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가 지척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묵묵히 서 있는 레이돔의 모습, 그 안에서 많은 바 임무를 완수하려 매진하는 얼룩무늬 전투복의 장병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곳을 찾는 일반 여행객과는 다른 감회에 젖는다.

모두가 동경하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 높이 서 있는 아자수와 감굴나무들로 뒤덮인 이곳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일제 강점기에는 태평양 전쟁의 전진 기지로 한국 전쟁 당시에는 국군 양성의 요람으로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제주도이다.

현재의 제주도의 중심은 제주 시이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특히 군사적(軍事的)인 관점에서의 중심은 바로 남제주군의 대정 지역이다. 제주도 남서 지방의 중심지로서 농업 기지인 동시에 국토 최남단 마라도와 최단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평화



대정초등학교의 공군사관학교 훈적비

로운 이곳에서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픈 기억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곳은 바로 대정 지역에 위치한 전시적으로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기간 동안 군사 요충지로서의 흔적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이 대정 지역은 일제 강점기의 핵심 군사 기지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곳이 바로 알드르 비행장[당시는 오무라(大村)비행장]이다. 태평양 전쟁 당시 상해를 폭격할 목적으로 건설되었던 곳으로 사세보 해군 항공대 2500명과 전투기 25기가 배치되었으며, 이른바 '가미가제(神風)'라 불리는 전투기들의 중심 기지였다.

이곳에는 비행장 활주로를 비롯



제주도 남부 최고의 명소 신방산

해 각종 부대 시설이 남아 있다. 부대 시설로는 관제탑, 20여개소의 격납고, 정비고, 방공호, 탄약고, 대공포 진지, 일조 점호장 등이 있다. 또한 비행 기지와 병행하여 자폭 어뢰정(이른바 다이아다리선) 접안 시설 및 은신처로 이용되었던 굴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아무런 보존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견고하게 남아 있고, 특히 가미가제와 다이아다리선을 위한 격납고와 동굴은 기계가 아닌 인력으로 모든 공사를 해냈다는 사실에서 민족의

아픈 상처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다.

### 아프고 쓰러린 역사의 흔적들

해방 이후 좌우익의 혼란과 상처를 극복하는가 했으나, 한국 전쟁 당시 대정 지역이 군인 양성의 요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군사 요충지로 역사에 등장하였다. 1951년 3월 21일 육군 제1훈련소가 정식 출범하여 5년여 동안 주둔하며 50여만 명의 군인을 양성하였다. 또한 6·25 동안중 공군사관학



알드르비행장의 관제탑

제주도 남서 지방의 중심지로서 어업 기지인 동시에 국토 최남단 마라도와 최단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평화로운 이곳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기억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알드르비행장 격납고  
(현재 지역 농민들의 창고로 이용)



교가 이곳 대정초등학교로 이동하여 1073명의 사관생도를 길러내면서 인연을 맺었고 현재도 우리 부대와 자매 결연 관계에 있다. 현재는 전사적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훈련소 정문만이 행하니서 있고 옛 자취를 찾을 수가 없으나, 당시 이곳의 인구가 제주시의 인구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과, 읍내 곳곳에 당시의 기억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주민들을 보면서 남다른 감회에 젖게 된다.

당시의 상황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강병대교회이다. 1952년 5월 1일 기공되어 현재까지 계속 보존되고 있는 강병대교회는 육군 제1훈련소의 교회로 출발하여 국군 사적 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대 장병의 신앙 터전으로 자리잡고 있는 동시에 쓰

라린 과거를 알리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강병대교회는 당시 '신우학원'이라는 학교를 운영하여 가난하여 배우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교육하여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왔다.

### 우뚝 솟은 레이돔을 바라보며 꿈꾸는 미래

아름다운 섬 제주도. 섬이라는 이유로 고립과 단절, 한계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곳. 관광지로서 일상을 탈피해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역사의 아픔과 당시 선배 군인들의 치열했던 노력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국토 최남단의 유일한 공군 부대로서 조국의 영공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는

존재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동시에 이러한 역사적 의미로 인해 우리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진다. 모슬봉의 레이돔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히 서 있지만,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채 마라도, 나아가 태평양을 바라보며, 21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강한 공군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한다.

이른 아침 인적 드문 어두운 출근길. 불품없이 남아 있는 육군 제1훈련소 정문 기둥 잔해를 통과한다. 선배 군인들의 뜨거운 가슴과 끓는 피를 느낀다. 두 주먹을 힘껏 쥐어보며 새로이 시작하는 하루를 설계해 본다. 우뚝 솟아 있는 레이돔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미래, 우리 공군의 미래를 꿈꾸어 본다. ☘

글·중령 김 주 혁  
사진·대위 박 종 원

강병대교회 전경



“종이 비행기에 꿈을 실어 보내지요!”

## 이런 사람이 **신 지식인** 종이 비행기 제작자 **이희우** 중령

종이 비행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공군 전투 조종사!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날려봤던 종이 비행기를 접어 어린이들의 하늘에 대한 동경심과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큰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미래의 항공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군 장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공군 항공사업단에 근무하는 이희우 중령(공사 27기·43세).

일선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이중령이 종이 비행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미국 유학 시절이던 지난 '86년. 그는 우리나라 조종사의 체형에 맞는 전투기를 개발해 보고 싶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종이 비행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연히 한 서점에 들렀다가 종이 비행기를 다룬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양한 상상력이 담긴 종이 비행기들이 얼마나 많던지... 더구나 그런 책들이 다달이 서너 권씩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항공 대국의 저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더군요”

그후 그는 전세계의 종이 비행기 관련 서적을 모아 항공 공학박사답게 항공 이론을 적용한 다양한 창작 비행기를 접어 날리며 새로운 종이 비행기 제작에 관심을 기울여 나갔다.

그는 종이 비행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2개의 초경량 비행기 제작 특허를 얻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몇 년 전부터는 어린이 과학 캠프 등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종이 비행기에 대한 강의를 펼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각종 종이 비행기를 직접 접어 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종이 비행기(도서출판 종이나라)>라는 책을 내기도 하였다.

직접 제작한 종이 비행기에 소중한 꿈을 접어 날리며, 이중령은 이렇게 말한다.

“우주 항공 산업은 지상에서 이루지 못한 꿈들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21세기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미래의 꿈입니다.” ☺

공군본부 중위 **용 홍 근**



## 조종사 및 가족 13명 사후 장기기증 서약 공군 장병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참여

공군 3726부대의 장병들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의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들은 조종사 최인영 소령 외 8명을 비롯한 그 가족과 간호장교 및 행정장교 5명으로 이들은 장기의 손상이나 질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접하고 안타까워하던 중, 사회에서 활동중인 장기기증운동 본부를 알게되어 '사후 또는 뇌사 때 각각, 장기, 시신, 뼈 등을 기증하겠다.'라는 서약을 함으로써 신뢰받는 공

군상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부대에서 처음 이 운동을 추진한 임종표(林鍾杓, 공사 38기)대위는 "사후(死後)에 제 자신의 신체 일부가 꺼져가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참헌신은 없을 것입니다."라며, "군인으로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군을 떠나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봉사할 때가 제일 기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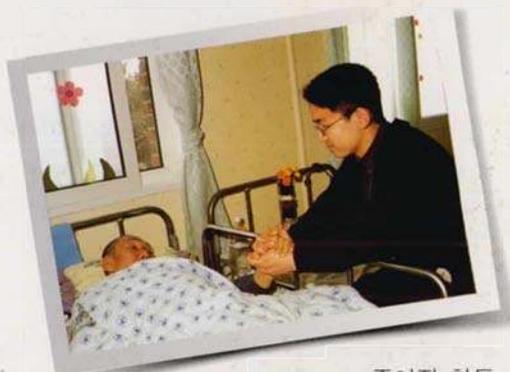
## 군인 자녀들 꽃동네 봉사 활동

공군 10전투비행단 관사 자녀들은 지난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무의탁 노인 및 지체부자유자들의 보금자리인 충북 음성읍의 꽃동네를 방문, 정성껏 모은 위문금을 전달하고 사랑의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꽃동네 방문은 겨울 방학을 맞은 군자녀들(초·중·고·대학생으로 구성)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의 어려운 현실을 체험케 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방문

에 앞서 사전에 총·효·예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1박 2일간의 봉사 기간을 더욱 알차게 했다.

관사 자녀들은 이번 기간중 꽃동네의 심신 요양원, 자애 병원, 노인 요양원, 생활관 등지에서 침구 정리, 의류와 이불 세탁, 원생 목욕 돕기 등 각자에게



주어진 힘든 일을 성실히 하며 짧은 기간이나마 원생들의 손과 발이 되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

#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의 '세상 사는 이야기'

전비 이상규 대위의 부인 황 현 정



99.2

그는 일단 무언가에  
몰두할 때면 파종할  
씨앗을 고르는 농부의  
마음으로 모든 열정을  
다한다. 이틀이고

사흘이고 간에 밤을  
샐 일이 있으면 그는  
몸이 부서져라  
무언가를 성취하고  
나서야 고집을 접는다.

이제는 딸아이까지  
그의 흉내를 내곤  
한다. 세 살바기가  
무얼 안다고 뒷짐을  
지고 이리저리  
맴도는 걸까.  
웃음보다는 그저  
말문이 막힐 정도다.

그렇다고 그가 부탁할 줄  
아는 것도 아니다. 왜 그리도  
자존심이 센지 모르겠다.  
시키기보다는 행동이 앞선다.  
상대방이 스스로 느낄 때까지  
말이다.

한번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살아?”  
“응?! 그야 물론 당신하고  
우리 토끼가 보고 살지!”  
“장난하지 말고!”

그제야 그는 심상치 않은 내  
표정을 보고서는 겸연쩍어 한다.  
그리고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변명한다는 것이 고작(?)  
이렇다.

“여보! 사실 말이지. 일도  
즐기면 재미가 있어!”

그는 바보다. 정말 미워할 수  
없는 바보가 분명하다.

여보, 힘내세요! 여기 당신의  
영원한 평강 공주가 있잖아요! ♡

그는 늘 소년의 미소를  
간직하고 있다. 작은 것에  
감동하고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유머에도 그는 바로  
민들레가 되어 방안 가득  
웃음의 흩씨를 채운다.

그는 유독 커피를 좋아한다.  
아니, 커피 향이 은은히 감도는  
잠깐의 여유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또한 그는 지독한  
애연가이다.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 하루에 반 갑 정도이니  
걱정 말라고 한다.

새벽녘에 그를 깨우는 것은  
커피와 담배다.

그렇다! 그는 늘 습관처럼  
출근 전에 커피와 담배를  
피워물곤 한다. 커피와 담배를  
쉽게 못 끊는 것처럼 그는  
천성이 여리다.

세 살바기 딸아이 송희를  
가르칠 때도 그는 큰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저 아이 옆에서  
책을 읽다가 스르르 잠에 든다.  
자연히 악역은 내 차지다.  
그러다가도 그는 일단 무언가에  
몰두할 때면 파종할 씨앗을  
고르는 농부의 마음으로 모든  
열정을 다한다. 이틀이고  
사흘이고 간에 밤을 샐 일이  
있으면 그는 몸이 부서져라  
무언가를 성취하고 나서야  
고집을 접는다.

정작 돌봐야 할  
건강에는 인색하고  
일에만 몰두하는  
그에게 난 늘 불만을  
털어놓는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난 공직자야.  
군인이라고!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저 사람이 가족에게 관심은  
두고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는 오늘도 출근길에 ‘조금  
늦을지도 몰라.’ 라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섰다. 어제도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하는가 싶더니 잘 풀리지 않은  
모양이다.

결혼해서 3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말한 ‘조금’ 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다.  
늘 그는 그렇게 ‘조금’ 이라고  
하면서 단 한 번의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결혼 전에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군인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보면 난  
속고(?) 결혼한 셈이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일을  
만들려고 한다. 분명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도 고민하곤 한다.

##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난 뒤...

기본군사훈련 단장님 전 상서.

저는 지난 9월 21일 입대했던 김정철 이병의 보호자입니다.

정철이는 지금 광주광역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98년도 저물어가는 이때 너무나 많은 수고에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엄마인 저는 청소년기에 빨간 마후라의 공군의 모습을 꺾이나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입대한다기에 번쩍 빛이 나는 고장을 찾았습니다.

보호자들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만족할 만큼 좋았습니다. 궁금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였지요. 열린 행정은 곧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었으니까요.

산세, 지세 좋은 곳에서 하늘을 찌를 수 있는 군기를 생산하는 곳이거나 했습니다. 잘 돌봐주시겠지 하는 하나의 믿음으로 그 어떤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없이 평안하게 마음속으로 아들을 부탁했었습니다. 집에 있는 지금의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단장님의 깊은 사랑이 깃든 배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 역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그리면서 조직 내·외부의 조화와 깊은 사명감에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도 좋아서 줄필이지만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보위하는 군인 정신의 지속적인 동력은 겉으로는 강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동시에 자상하고 부드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장님의 마음의 빛은 훈련단 식구는 물론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도 따스하게 비칠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새해에도 축복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998. 12. 28 광주에서  
이병 김정철의 모 김세자 올림



### “내 더위 사가라!” 외치던 그 옛날 추억

올해는 2일이 정월 대보름날이다. 예전엔 이날 아침 일찍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곤,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 했다. 그 당시 더위를 팔면 여름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말에, 학교 가면서도 친구들에게 신나게 더위를 팔곤 했던 이런 장난들이 점점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웬일일까?

이 달의 절기로는 6일이 경칩(驚蟄)으로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날이다. 식물들은 기온의 변화로 꽃을 피웠다. ‘꽃샘추위’에 얼어죽는 경우가 있지만, 동물들은 벌이 드는 시간의 양을 감지해서 잠에서 깨어나기에 정확한 경칩 날을 알게 된다고 한다.

21일은 춘분(春分)으로 밤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자, 연지(燕至)라 하여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절기이기도 하다.

## 3월에는 ‘부림’을 깨는 마음으로

### 장병들의 건강과 야간 근무에 감독자들의 관심 필요

3월은 봄철로 바뀌면서 기압계의 이동이 빠른 가운데 날씨의 변화가 심해지는 달이다. 월평균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며, 강수량은 평균 40~70mm 정도를 보인다. 항공 작전시 강한 바람으로 인한 촉풍 및 난류와 함께,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현상, 오래 지속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짙은 안개는 경계를 요한다. 또한 약 3,000m 고도에서의 운중 비행에는 심한 착빙이 예상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날씨와 온도의 변화가 심하므로 장병들의 건강과 야간 근무에 감독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맘때에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갈라진 나무 줄기에 돌을 끼워주는 ‘가수(嫁樹)’와 호두 등을 깨물며 사고 없게 해달라고 축원하던 ‘부림’ 등의 풍속이 있었다. 재 아무런 사고 없이 많은 성과만 있는 ‘부림’과 ‘가수’의 3월이 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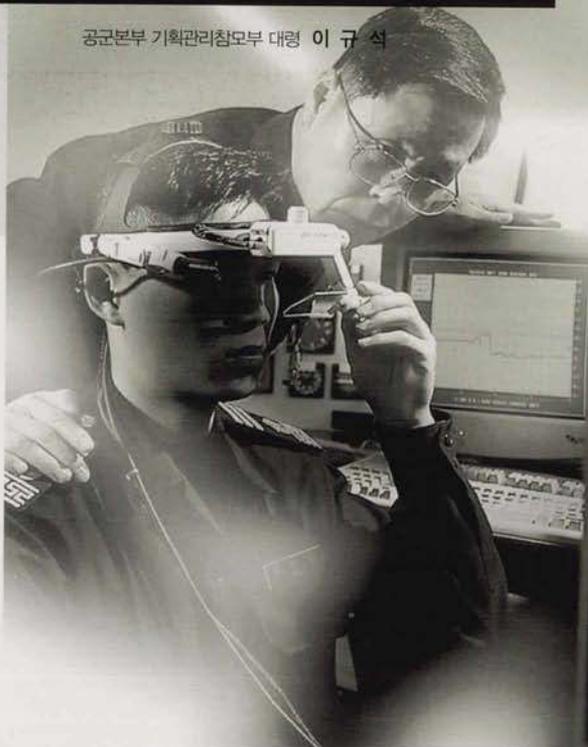
73기상전대 기상연구부

# 21C

공군을 본다

'99년은 신뢰받는  
21세기형 강한 공군  
육성 기반 강화의 해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대령 이 규 석



## '98년은 공군의 위상을 한껏 고양시킨 해

1998년은 우리 공군이 '신뢰받는 21세기형 강한 공군 육성'을 목표로 전장병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완벽한 영공 방위 임무 완수와 함께 계획되었던 건군 50주년 행사, 각종 작전과 연합 및 합동 훈련, 그리고 서울 국제 에어쇼를 비롯한 각종 대내외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우리 공군의 위상을 한껏 고양한 한해였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지식 사회에 대비한 정예 공군인 육성 기반의 추진과 군 개혁을 적극 실천하고 1일 1건 병영 교육과 1일 3선 운동을 통한 병영의 국민 교육 도장화를 실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공군상 구현과 '21세기형 강한 공군'의 면모를 착실하게 구축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가 경제 재건을 위한 경제난 극복 운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4억 5,000여만 불의 외화와 158억 원의 에너지·물자 비용, 1,247억 원의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고 저축률도 '97년도 28%에서 42%로 증대시킴으로써 국가 경제 회복에 일조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별한 지휘 관심과 총화적 임무 관리를 통한 안전의 생활화로 비행 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 사고와 군기 사고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 대내외 여건 속에서의 우리 공군의 역할

'99년은 2000년대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시점으로 우리 공군에게 더 많은 변화와 도전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면서 인

류 공동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세계 도처의 지역 분쟁과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등은 여전히 지구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간 교류 및 협력의 증대와 4자 회담의 진전 등 긍정적인 변화 요인도 있지만, 군부 주도의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강성 대국'을 표방하면

서 대량의 화생방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비

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고, 수차

레에 걸쳐

침투 도발

을 자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으로도 다양한 양상

의 전천후적 도발이 예상되

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 회복의 기미는 보이고 있지만 경제 회복을 위한 시련과 고통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안보 환경과 국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인 우리 공군으로서 '99년은 국가의 안보와 정부의 대북 정책 구현, 그리고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영공 방위 태세의 확립과 21세기 전장 환경에 부합한 공군력 건설, 그리고 정보화·지식 사회에 능히 적응할 수 있는 전문 능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별한 지휘 관심과 총화적 임무 관리를 통한 안전의 생활화로 비행 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 사고와 군기 사고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력 구비를 요구받고 있다.

### 완벽한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노력

이러한 대내·외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공군은 '신뢰받는 21세기형 강한 공군 육성 기반 강화'를 '99년도 운영 목표로 하여 '완벽한 영공

방위 태세 확립', '실전적 교육 훈련 강화', '정예 공군인 육성', '공군 개혁 실천의 가속화', '경제적·효율적 군 운영', '미래 지향적 공군력 건설'과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구현'을 운영 중점으로 설정하여 내실있게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공고한 한미 연합 작전 체제를 바탕으로 북괴의 도발을 사전 억제할 수 있고, 유사시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영공 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북괴군의 최근 동향과 예측 불허의 전천후적 도발 양상에 대비하여 최고의 대비 태세 유지와 실전적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작전 지원 태세 확립과 경제적인 군수 지원 태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21세기 전장 환경과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인 공군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Y2K 문제 검증과 시험 운영을 전반기중에 완료하여 Y2K 문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21세기 정보화·과학화 환경에 능히 적응할 수 있는 정예 공군인 육성을 위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한 교육 훈련 체계의 개선과 정보화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양성 및 특기 교육 과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군상 확립을 위한 노력

셋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엄정한 군기강 확립과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병영의 국민 교육 도장화를 적극 추진하며 공군 창군 50주년 기념 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공군'을 만들기 위해 엄정하고 합리적인 지휘 관리 체계를 확립

지난해에는 개혁의 '불'을 짜고 우선 추진할 분야의 개혁을 실시했는데, 올해에는 전반적인 개혁의 실천을 가속화하여 '신뢰받는 21세기형 강한 공군'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하고 병영 내의 불합리한 관행과 악습을 제거하여 명랑한 병영 생활을 조성하며

현장 확인 중심의 사고 예방 활

동 전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국민 교육 도장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1일 1건 병영 교육과 주 1회 정신 교육의 날 운영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장병들이 건전한 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인 1기 교육의 활성화와 국가 기술 자격 1개 더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친절하자', '남을 돕자', '바로잡자'는 1일 3선 운동으로 장병들의 공동체 의식과 희생 및 봉사 정신을 함양시킬 계획이다.

금년 10월 1일 공군 창군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는 '미래 지향적인 공군상' 구현을 목표로 국가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행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대군 신뢰 증진과 장병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며, 국민 동참 행사를 적극 발굴 시행하여 민·군 유대 증진과 일체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

진할 계획이다.

창군 50주년 기념 행사는 4월부터 10월까지 행사 계획에 의거 추진될 예정이며, 주요 행사로는 A-37 블랙이글팀의 7개 기지 전국 순회 에어쇼와 대규모 전술 폭격 시범 훈련, 모형 항공기 및 행글라이딩 대회, 공중 사격 및 유도탄 사격 대회, 각종 학술 세미나 등을 4월 이후 연중 개최할 계획이다.

### 군 개혁 실천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

넷째,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국방·군 개혁의 실천이 가속화될 것이다. 지난해에는 개혁의 '틀'을 짜고 우선 추진할 분야의 개혁을 실시했는데, 올해에는 전반적인 개혁의 실천을 가속화하여 '신뢰받는 21세기형 강한 공군'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제2의 건국 운동'과 '경제난 극복 추진' 등의 국가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6·25 이후 최대 국난인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건설하는 데 공군 전장병 및 가족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시행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금년은 우리 공군 전 장병이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공군 운영 목표인 '신뢰받는 21세기형 강한 공군 육성 기반 강화'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

# 강인한 체력은 공군의 전투력과 직결

올해부터 각 군은 장병의 전투 체력 향상을 위해 엄격한 체력 검정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공군도 올 상반기에 체력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 개인의 자력 기록부에 반영하게 되었다.

## '99년도 전투 체육 활성화 지침

첫째, 전투 체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오늘날 현대인의 신체는 비만화되고, 심한 소음과 공해 및 스트레스의 증가로 면역력이 감소하였으며 운동 부족으로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올바른 전투 체육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전투 체육은 단체 운동 위주로 실시해야 하며, 시작 전 국군 도수 체조, 구보 등을 실시한다. 셋째, 태권도와 태권무의 수련을 활성화해야 한다. 각 부대 및 부서의 태권도·무 교관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태권도 수련을 실시하고, 각종 체육 행사시 반드시 태권도·무를 실시하도록 한다. 넷째, 축구 경기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높아진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군 내부에 확산시키기 위해 축구 동호인 및 기타 축구

관련 활동을 적극 시행한다.

## 장병 체력 향상 실천 방안

이같은 전투 체육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동의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체중 감량, 체력 관리, 기타 운동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에 운동을 해야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 부여가 된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연령이나 심폐 기능, 근육 및 관절 등에 무리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 금방 지치거나 싫증을 내지 않게 될 것이다.

운동은 주 3~5회 30분씩 이상 하는 것이 체력 향상에 가장 좋은 효과를 준다. 인내심을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핑계로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울러, 운동을 위한 적당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흔히 무리한 계획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여 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운동 전후엔 반드시 준비·마무리 운동을 실시한다. Ⓛ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단순히 체력 검정을 위한 운동이 아닌 자신의 체력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늘 건강한 신체와 아울러 향상된 전투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유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 옷을 만들 때 배출되는 오염 물질들

의복은 유행에 민감한 소비품이다. 많은 고급 의상실, 고급 의류 업체, 패션 디자이너, 패션 모델들이 유행을 창출하고 있다. 수영복 하나만 해도 해마다 업체별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의복에 풍부한 변화를 주고 소비를 창출하는 과정은 우리의 소비 생활을 풍족하게 해주는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유행에 따라 옷을 자주 바꿔 입게 되면 이러한

의복의 제조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자원이 소요되며 의복의 염색 과정에서 유독성 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적이고 생태학적인 면에서 건전한 생활을 하려면 의복도 유행에 따라가기보다는 튼튼하고 실용적이며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구입하여 입어야 한다. 그리고 너무 자주 옷을 드라이 클리닝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드라이 클리닝을 할 때 사용되는 세척용 용매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다.

## 지나친 치장은 공해 배출을 도와주는 격

또한 화장품도 되도록 적게 사용하여야 한다. 화장품 속에는 몸에 해로운 불순물이 들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짙은 화장을 계속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화장품을 아껴 쓰면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소요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폐수와 폐기물의 발생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액세서리도 검소하게 치장하여야 한다. 액세서리를 과도하게 치장하게 되면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셈이 되어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조장하고 공해의 배출을 도와주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공군본부 환경과

환경적이고 생태학적인 면에서 건전한 생활을 하려면 의복도 유행에 따라가기보다는 튼튼하고 실용적이며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구입하여 입어야 한다.

항공 전략 사상과 항공력의 교훈

## 미 항공단 전술학교(ACTS)

ACTS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떠한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 진정으로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으며,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면서 항공 전략의 사상적 무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항공 전략 사상의 발전 단계에서 인물이 아닌 군사학교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미 항공단 전술학교(ACTS : Air Corps Tactical School, 1920~1940)는 이탈리아의 카프로니, 두헤 장군, 남아메리카 출신의 스무츠 장군, 영국의 트렌차드 경, 리델하트, 그리고 빌리 미첼과 같은 개척자들의 전략 개념을 기초로 하여 항공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을 개발하였고, 미국에 적합한 항공 교리를 개발함으로써 미 공군을 탄생시킨 지식의 본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1930년대 미국의 전략적 항공력 교리는 이 학교에서 구체화되었으며, 미국의 경제 공황 시기였던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대적인 항공력 건설을 결심하게 되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현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1차 대전의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 정립

당시 교관들은 육군 장교로서 기존 육군 교리에 기초를 두어야 했으며, 게다가 각 군간의 경쟁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조종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연구 과제를 납득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1933~1934년 ACTS는 항공 전술, 지상 전술, 그리고 기초 및 특수 교육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조직은 구성되어 있었지만 각 부분들 사이에는 어떠한 조정이나 공군 요소들의 발전과 적용을 위한 지배적인 개념이 없었으며, 공군력의 합의된 철학도 존재하지 않았었다. 항공 전술과(후에 항공 전술 및 전략 과로 개칭)는 이 같은 철학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항공 전략 사상의 핵심을 제공하였다. 이 시기부터 미국의 공군력 운용 원칙과 교리는 점차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ACTS 교관들은 지상군의 피비린내나

는 정면 대결로 엄청난 인명 손상과 비용이 소모된 1차 대전의 체험과 공중 공격에 취약한 선진국의 산업 조직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즉, 전략 폭격을 내용으로 한 'Industrial Web'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론의 핵심은 산업 체계의 주요 표적을 폭격함으로써 적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일 뉴욕 시내의 수송, 상·하수도 및 전력(Electric) 체계 중 17 곳이 파괴된다면 뉴욕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매우 정확한 폭격만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성과는 대량 파괴나 희생을 수반하지 않고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1939년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고,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1941년 연합 대전략을 포함한 작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연합군 육·해군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육군과 해군은

공군력을 통한 특별한 전략에는 동의할 수 없었고, 합동전 계획 무지개-5(Joint War Plan Rainbow-5)의 일반 지침에 따라 각군은 각자의 소요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항공 전략의 중요성

이 계획은 대서양 전역(戰役)을 최우선적인 작전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독일에 대한 지속적이고 무자비한 공습, 유럽 서부 지역 방어,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방어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는 기초적인 산업 동원까지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전쟁 계획처는 거대한 임무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쟁 계획처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때 ACTS의 교관 출신인 해럴드 조지는 공군력이 육군 지원에만 국한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항공전 계획처에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견은 받아들여졌으며 항공전 계획처 계획 1, 즉 AWPD-1이 작성되게 되었다. 계획 작성에 허용된 시간은 단지 7일이었다. 이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ACTS 교관 출신(해럴드 조지 등)들은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이 계획에는 전례없는 규모가 허용되어졌으며 4가지 원칙이 주어졌다. 그것은 유럽 서부 지역 방어를 위한 공중 작전, 독일 및 독일군 점령 지역에 대한 공중 공격, 유럽 대륙에서의 지상군 공



중 지원 작전 및 차후 작전에서의 공중 지원 작전, 태평양 전략 방어를 위한 공중 작전이었다. 7일 만에 완성된 이 계획은 ACTS에서 이미 발전되었던 교리에 근거하였으며 곧바로 미국의 공군력 교리가 되었고 현재 세계 최강인 미 공군 건설의 초석이 되었다. ACTS 교관 출신인 이 계획의 입안

자들이 공군력의 전략적 사용에 대한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이 계획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완성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ACTS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떠한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 진정으로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으며,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면서 항공 전략의 사상적 무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지금은 IMF 시대다. 그러기에 우



미항공단 전술학교(ACTS) 전경(위)  
해럴드 조지(아래)

리는 더욱 더 준비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조국의 미래보다 IMF 시대가 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승리의 여신은 전쟁의 성격 변화를 예견한 이들에게 미소를 짓지만, 가만히 앉아서 변화가 일어난 후에 적용하려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 두헤

(다음호에 계속)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언젠가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를 벗어나 먼 우주를 여행하게 되면, 인간은 조그마한 탐사용 우주선을 보내기보다는 큰 우주선을 외계 행성에 보내어 다른 행성의 암석이나 토양을 채취, 지구로 귀환시키고 싶어할 것이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생명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할 물이 풍부한 곳이라고 믿어지는 어느 별이 있다면 인간을 직접 보내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화학 로켓(추진제를 연소시켜 추력을 얻음)보다는 핵분열 반응에 의해 추력을 얻는 로켓이 필요할 것이다.

소 가스의 배출 속도가 로켓을 아주 고속으로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가장 성능이 좋다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한 로켓도 지구 궤도를 이탈하는 우주선에 줄 수 있는 최대 속도가 고작 10km/s 정도이다. 반면, 원자력 로켓은 우주선의 속도를 22km/s까지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정도 속도면 토성까지 다른 행성의 중력을 이용할 필요 없이 곧바로 날아갈 수 있어, 우주선이 목성에 도착하는 시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자력 로켓은 흔히들 알고 있는 상

## 정보 비행

# 눈앞에 다가온 '원자력 로켓 시대'

원자력 로켓은 우주선의 속도를 22km/s까지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정도 속도면 토성까지 다른 행성의 중력을 이용할 필요 없이 곧바로 날아갈 수 있어,

우주선이 목성에 도착하는 시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 목성 도착 시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

화학 로켓은 지금껏 잘 사용되어 왔지만 로켓에 실린 연료의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력이 너무 낮다. 예를 들어 외계의 먼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화학 로켓은 중량에 많은 제한을 받고, 행성의 중력을 너무 많이 이용한다. 행성 중력을 이용하여 우주선을 가속하려면 우주선이 행성의 중력장에 부딪혀 고무줄 총에 튕겨나가는 것 같은 작용이 일어나도록 충분히 가까이 접근하여야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학 로켓은 증가할 수 있는 최고 속도가 낮다. 이는 로켓 노즐에서 연

식과는 반대로 매우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발사할 때 강한 방사능을 내뿜을 필요도 없다. 원자력 로켓을 가진 우주선은 처음에는 기존의 화학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지상 800km 이상의 높은 궤도에서 핵분열로 추진력을 얻게 된다.

### 가스와 얼음 속의 수소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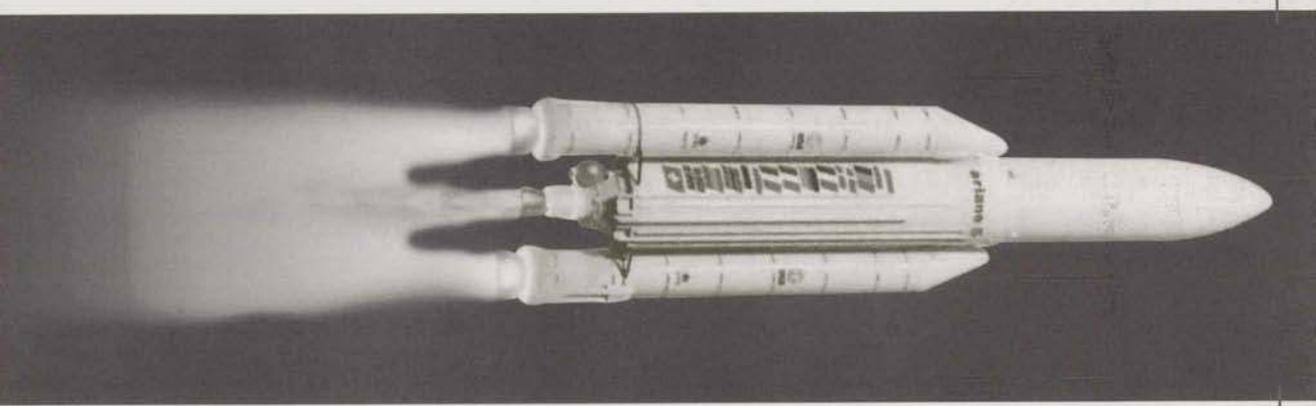
핵분열에 의한 추진력을 얻는 로켓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현재의 기술 수준과 아주 거리가 먼 것은 아니다. 핵반응로의 핵연료는 젤리를 돌돌 말아 가운데 구멍이 뚫린 현상의 Annular

Roll 안에 구멍난 금속판의 형태로 존재한다. 수산화리튬7 재킷은 연료 Roll의 바깥 주변을 감싸고 있어 핵연료 내부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방출되는 중성자들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감속제(Moderator)로서의 역할을 한다. 냉각제인 액체 수소는 Roll의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으로 흘러가면서 열을 받아 빠르게 기화되어 Roll 중심을 향해 흐른다. 2,700°C까지 온도가 상승한 과열된 가스는 Roll의 중심에 있는 통로를 따라 고속으로 흘러 끝단에 있는 작은 노즐을 통해 고속으로 방출된다. 추진제로 수소를 사용하는 원자력 추진 엔진의 가

개월 동안 비행하면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여 유로파(Europa), 플루토(Pluto), 타이탄(Titan)과 같이 얼음이 존재하는 위성들로 날아가 암석 샘플을 채취하면서 동시에 얼음을 녹여 물로 만들고 다시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얻어 지구로 돌아올 수도 있다.

### 유용하고 안전한 원자력 로켓

원자력 로켓의 핵반응로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가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학 로켓을 사용하는 태양계 외곽 탐사선들에 비해서 더 안전



장 큰 매력은 태양계 외곽의 거대한 행성들에 가스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와 그 행성들의 위성에 얼음(얼음은 물이고 물을 분해하면 수소가 추출된다)이 있어 수소를 얻기가 쉽다는 것이다. 핵연료는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수소를 재충전해야 하는 시기로 따져 약 10~15년 가량 태양계 외곽을 여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자력 엔진을 장착한 우주선은 곧바로 목성, 토성, 우라노스(Uranus), 넵툰(Neptune) 같은 태양계 외곽의 행성이나 그 위성의 대기권에서 몇

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고작 몇 그램 정도로 무시할 만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지구에 다시 돌아올 일은 없다.

원자력 로켓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 국방성의 우주핵 열추진(Space Nuclear Thermal Propulsion)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이 계획의 목적은 군사용으로 응용 가능한 무거운 물체를 고도로 쏘아올릴 수 있는 소형 경량의 원자력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

편집실

# 밀레니엄과 세기말 신드롬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한다!”

작년 흥행에 크게 성공했던 영화 <아마겟돈>과 <딥 임팩트>를 보면 혜성과 지구의 충돌로 인한 지구 종말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최근 새로운 밀레니엄(천년기)을 맞으면서 이처럼 영화나 책, 방송 등에서 종말에 대해 경쟁적으로 다루는 세기말 신드롬을 볼 수 있다.

## 세기말 신드롬 이야기

세기말 신드롬에 관련된 예언과 설들을 보면 크게 종교적 형태를 띤 것과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대표적인 것에는 올해 8월 지구 최후의 날이 온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존 호그의 ‘밀레니엄의 대예언’ 등이 있고, 최근에는 성경에 나오는 지구 종말을 풀이한 책들도 나오고 있다. 성경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

이 있으리니…”라고 종말을 묘사하고 있다. 근래 들어 분쟁 지역의 확대와 기상 재해로 인한 기근과 재앙을 바라보면, 정말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종말설)로서 먼저 ‘악성 바이러스에 의한 재앙설’을 살펴보면, 엘니뇨 등의 기상 이변으로 특유의 번식 환경과 변종들의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화산 폭발설’을 들 수 있는데, 최근 화산 활동의 활성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화산 폭발의 피해는 초고온의 가스화 화산재 입자로 구성된 상승 구름이 화산 폭발 후 하늘을 뒤덮고 태양 광선을 가로막아 생물의 호흡과 성장을 막고 빙하 시대를 오게 하기에 이른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혜성과의 충돌설’로, 만약 지구가

직경 1km 이상의 소행성과 충돌하면 엄청난 양의 먼지와 산성비 및 이산화황 성분으로 인해 지구 전체의 기온은 급강하할 것이라고 예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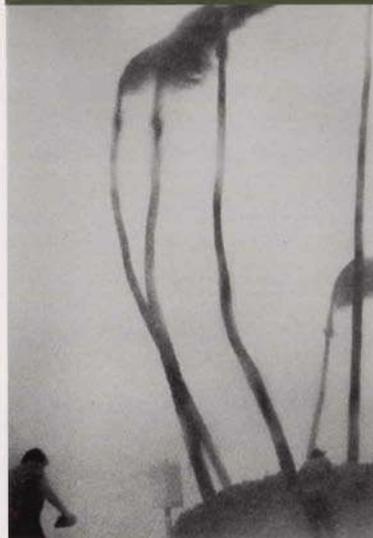
## 세기말 이론에 대한 반론

대표적 예언서인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은 난해하고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진 것으로도 유명한데, 어떻게 것처럼 정확하게 ‘99년 8월로 해석할 수 있을까? 내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도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97년에 종말이 온다고 해석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또한 많은 광신자 집단들도 성경에서 나타난 종말을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하여 곧 종말이 올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성경에서는 “그날과 그때는(종말)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한다. 즉, 아무도 언젠가 종말이 될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세기말 이론 중에서, 먼저 ‘독감이나 악성 바이러스로 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호도하는 광신자 집단과,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떠들어대는 일군의 과학자들에 의해 종말론이 더욱 득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 재앙설'은 인류의 잠재력을 너무 과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홍콩 조류독감 발생시에도 많은 이들이 큰 피해를 예상했지만, 최첨단의 예방 의학으로 탈 없이 막아내지 않았는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의 해빙설'이나 '혜성과의 충돌설' 역시 너무나 비관적인 전망으로, 많은 과학자들은 앞으로 수천년 동안에는 이런 최악

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호도하는 광신자 집단과,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떠들어대는 일군의 과학자들에

의해 종말론이 더욱 득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세기말을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

과연 지구에 종말은 올까? 만일 종말이 온다면 어떤 형태로 올까? 다른 무엇보다도 지구의 종말은 대대적인 핵전쟁에 의해서 다가오지 않을까? 핵전쟁으로 인한 핵겨울 및 환경 파괴는 지구 종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밀레니엄 테러'로 불리는 극우 단체나 광신적 종교 집단, 종말론자들이 2000년이 되기 직전 '아마겟돈의 예언'을 실천하기 위해 엄청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다. 또한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기 공해, 열대 우림 파괴 등의 요인 등이 급격한 기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상 변화는 가속적 속성이 있어 어느 한계를 넘어설 경우 견잡을 수 없이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세기 전 영국에서는 '어둠의 날'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날이 너무 어두워 세상의 종말이 도래했다는 공포가 온 나라를 휩싸고 있었다. 개회중이었던 의회에서 세상의 종말이 왔으니 회의를 연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한 의원이 일어나 "세계의 종말이 닥았다면 우리의 생활을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늦었고, 만일 종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던 일을 끝마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고, 그들은 회의를 계속했다고 한다.

성경에서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 말라."고 한다. 괜히 쓸데없는 세기말적 신드롬에 편승하기보다는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아껴 사용하고, 앞으로 10년 아니 30년 후의 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종말론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The Show Must Go On!"

73기상전대 중령 반기성

# 혹한기 훈련의 멋진 추억



사람의 인생에는 여러 번의 굴곡이 있다. 평범한 사람이든 비범한 사람이든.

세 번째 혹한기 훈련은 전역을 앞둔 나의 군생활에 마지막 굴곡일지도 모른다. 길어진 훈련 기간과 영내가 아닌 영외 천막 생활 등 전에 없던 그야말로 혹한기 훈련이었다. 하지만 힘들었던 만큼 복귀했을 때의 즐거움이 컸던 것은 당연했다.

훈련 기간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훈련보다는 오히려 의식주의 해결이었다. 총검술, 제식, 태권도는 어디서 하든 똑 같다. 하지만 좁고 불편한 잠자리, 이동 화장실... 기본적인 의식주가 불편하니 내가 그곳에 있다는 자체가 힘들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훈련간 정리와 아직 덜 준비된 부분을 마무리했다. 내가 맡은 부분은 천막 배수로 호가장 작업이었는데 땅이 얼어 삽과 곡괭이로 일전을 벌였다. 난 행정병이라 솔직히 다른 사람보다 작업에 익숙하지 못한 편이다. 삽질과 곡괭이질로 흘러나온 땀방울 속에는 문서와 PC 작업으로 찌들었던 찌꺼기가 함께 묻어나오는 듯했고, 상쾌한 바람에 땀을 씻는 시원함은 우리 모두가 함께 느낀 것이었다.

셋째 날은 30km 행군이었다. 행군에 콤플렉스가 있는 나는 약간은 두려운 마음으로 출발했

다. 정말 그렇게 힘들까? 하지만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니 행군도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는 30km 행군보다 두 배는 더 힘든 고난이 닥쳤다. 난로가 꺼진 텐트는 영하 9도였다. 새벽 4시, 새로 설치한 화목 난로에 불이 안 붙어 쿿구멍이 새까맣지도록 난로를 지피는 우리 6명은 그것 자체로 또 다른 혹한기 훈련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랑스런 복귀. 이렇게 내 군생활의 마지막 굴곡은 끝을 맺었다. 내 군생활의 또 다른 추억의 한 장면이 완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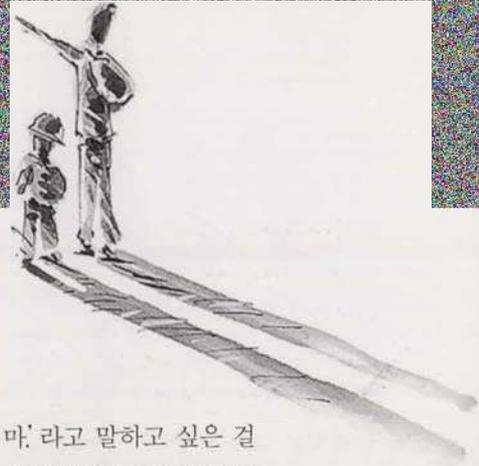
군 생활의 추억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나를 기다리는 따뜻한 내 무실이라는 사실이 다시 상기되

었다. 부대에서 집으로 가는 날, 가족이 있는 내 집도 나를 그렇게 맞이하겠지?④

8217부대 병장 김 선 욱



그래서 자유가 참 힘든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기차가 강을 끼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곁에 앉아서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아이는 탄성을 지르기 시작했지요.

‘아들에게도 이제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그 남자는 모르는 사이에 키가 많이 커진 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이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개교 기념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는 지난주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단 하루뿐인 휴가지만, 한적한 평일에 아이와 둘이서 짧은 여행을 해보고 싶었지요.

차를 두고 기차를 타는 여행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아들에게 의견을 묻자, 아이는 뜻밖에도 아주 즐거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아이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아빠와 둘이서 가는 여행 자체도 멋진 선물이었지만, 그것보다는 더 인상적인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남자가 아들에게 단 한 번도 ‘하지 마.’라는 말을 하지 않는 선물. 그런 선물을 주고 싶었지요.

집을 나서서 문을 닫을 때부터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버스를 탈 때, 기차에 오를 때가

지 그 남자는 ‘하지 마.’라고 말하고 싶은 걸 참느라 혼났습니다. 새삼 ‘하지 마.’라는 말을 그토록 많이 하고 살았었다는 것을 느꼈지요.

좋은 교육은 ‘하지 마.’라는 금지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니?’ 하는 권유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도 세상의 많은 부모들처럼 ‘하지 마.’라고 말

집을 나서서 문을 닫을 때부터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버스를 탈 때, 기차에 오를 때까지 그 남자는 ‘하지 마.’라고 말하고 싶은 걸 참느라 혼났습니다. 새삼 ‘하지 마.’라는 말을 그토록 많이 하고 살았었다는 것을 느꼈지요.

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에 이미 길들여져 있던 것이지요.

춘천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는 아들에게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이 지갑을 책임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밥을 사주고, 아버지와 같이 다닐 곳을 결정하고, 그렇게 무엇이든 하도록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하지 마.’라는 금지에 익숙했고



어른들이 결정해 주는 것에 따르면 되었던 아들은, 무엇이든 너의 뜻대로 선택하라는 자유가 주어지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앞장서서 지갑의 돈을 꺼내어서 물을 한 병 사기도 하고 버스 값을 내기도 하면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지요.

소양담과 청평사 그리고 공지천까지 다 돌아본 다음, 그 남자와 아들은 다시 춘천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해 질 무렵의 기차역은 어디서나 아름답지요. 한나절만 떠나와 있어도 해가 지는 풍경을 보면 집이 그리워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아들은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와 통화를 하는 아들의 목소리도 아침과 다르게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가 참 힘든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 마.’라는 말을 하지 않기가 참 힘들었지만, 오후가 되면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토록 ‘하지 마.’라는 말을 많이 했을까? 내버려두어도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자라기 마련인데….

기차가 춘천역을 떠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마.’라는 말 대신에 ‘무엇이든 해도 좋다.’고 허락된 자유가 힘들었던지 아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 짧은 여행이 아들에게 좋은 추억이었기를 바라면서 그 남자는 불편하게 잠든 아들을 안아 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까지도 많이 유전 받았을 아들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

## 경제는 시스템이다

서울대학교 송병락 교수의 경제학 이야기. 송교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사회를 시스템 사회라고 규정하고서 이런 사회에 살면서 경제문제 등 우리가 당면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시스템 방식에서의 해결 방안을 인도해 주고 있다.

그의 책은 한국의 다양한 경제 현상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차원의 중시(中視) 경제학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기업진단, 일본의 케이레쓰, 독일의 기업그룹 등의 특성이나 역할이 더 잘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저자의 심도 있는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한 다양한 예시와 수치를 들어 일반 대중이 알기 쉽고, 편한 강의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속속들이 파헤쳐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각종 문제는 시스템 방식으로 해결하면 아주 잘 되는 것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시스템 방식은 어떤 문제이건 과학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고 세상을 보는 차원을 한 단계 높이자는 것이다.



송병락 지음/232면/김영사/6,900원

# BOOK

## 섬의 세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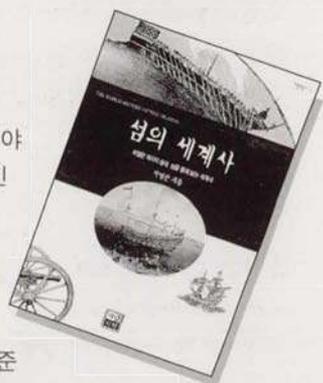
하늘을 지키는 공군 장교가 섬의 이야기를 저술하여 출판계에 이색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섬에서 출발하여 국내외 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의 역사를 이해하는 수준

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제2장 아시아의 섬

들, 제3장 태평양과 아메리카 대륙의 섬들, 제4장 유럽 및 대서양 주변의 섬들의 순서로 모두 31개의 크고 작은 섬들을 다루었다.

박영준(朴英俊 공사 36기, 34세) 소령은 이 책을 통하여 그동안 관심이 없거나 대륙의 역사에서 소외된 곳으로 간주되었던 섬들이 의외로 물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면서 세계사의 발전의 무대가 되었었다는 사실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국제관계가 형성되어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영준 지음/341면/가람기획/9,000원

## March

## 3월의 공군 약사

- 3. 1. 공군 기지내 육군 발칸포부대 인수('88)
- 3. 1. 중앙항로교통관제소(ARTCC) 건설교통부 이관('95)
- 3. 1. 공군본부 인터넷센터(Internet Center) 설치운영('96)
- 3. 29. 제1기 공군대학원(Air War College) 수료식('96)
- 3. 31. 백구부대의 여의도기지 전진 및 출격작전('51)
- 3. 31. C-54 수송기 퇴역('92)

## 3. 31. 백구부대의 여의도기지 전진 및 출격작전('51)

1951년 3월 14일 서울이 재탈환되자 한국공군은 미공군과 함께 대전기지 주둔 백구부대를 여의도기지로 전진시켰으며, 이에 따라 제주기지에서 단기간의 비행훈련을 마친 제11비행중대 소속 조종사 4명(이세영, 최종봉, 오춘목, 이강화)을 3월 31일 여의도기지로 배치시켜 미 6146부대 조종사 3명과 합동 출격하도록 하였다.

백구부대의 F-51 전투기는 4월 3일 첫 출격 이래 5월 31일까지 중·서부 전선의 후방차단 및 근접지원 작전에 투입되어 실제 출격일수 39일간에 261회 출격을 감행하여 적 차량 155대, 건물 105동 등을 파괴하고 적병 131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이 작전에서 한국공군 조종사 2명(이세영 대위, 최종봉 대위)이 전사하였다.



## 병장이 되고서...

8219부대 병장 임 형 태

모자에 달린 계급장 드디어 4층(?)이 되었다. 이병 계급장을 달고 뛰어다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진급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서인지 몰라도 크게 실감도 나지 않고 주위에서 병장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아직 어색하기만 하다. 지금은 전역한 옛 선임병이 '병장이 왜 병장인지 그 의미를 아느냐?'고 묻은 적이 있었다. 그는 병장이란 병(兵) 중의 장(長)이어서 '병장'이라고 불린다고 했다.

물론 그때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흘러 보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다. 진급신고를 할 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구나." 하시면서 이제 병장이 되었으니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선임하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병장이라면 병사들 간의 최고 참으로서 업무에서나 평소 내무생활에서나 술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고 책임도 그만큼 커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병장이 되면 내 무실이나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외를 하여 조금이라도 편해지려고 마음먹었던 내가 부끄럽게만 느껴진다.

내가 처음 자대에 왔을 때만 해도 모두들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나 취미생활을 위해서 조금씩 짬을 내어 실천하던 선임병들을 많이 보았다. 그 중에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자기가 원하던 대학과 학과를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도 있었다. 그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움을 느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

마다 나도 전역하기 전에 내가 계획한 일을 한가지라도 이루고 나가리라고 마음먹었던 일이 생각난다. 하지만 군 생활의 2/3가 지난 지금,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전혀 실천되지도 않은 채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 버렸다. 나의 추진성과 의지력 부족에 후회도 많이 하고 내 자신에게 화도 내 보았지만 모두 쓸데 없는 짓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만이라도 계획했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부대에도 저렇게 멋진 고참이 있었구나.' 하고 후임병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후임병들을 아끼고 격려하는 멋진 고참이 되어야겠다.

방포사랑방 중에서

### 1. 공군 비리신고 전용전화 신설 080-920-0909 (공군공군)

공군본부 법무감실 검찰부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통화가 가능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리신고 전용전화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 전화는 종전에는 장병 및 군무원들이 신고할 전화번호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를 기피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 '99년 2월부터 전화번호가 통일되어 기억하기 쉽고 신고전화 인지도를 높여 신고의 활성화를 기하며 특히, 검찰부에서는 군내 잔존하는 구조적 비리나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제보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며 법의날 표창을 상신할 예정입니다.

### 2. 군인 연금 법령 개정

국방부 복지과는 연금 재정의 안정과 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을 주는 신고 의무 등을 폐지하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군인 연금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기여금 및 국가부담금의 징수율을 상향 조정(보수월액의 6.5% → 7.5%)하였으며, 연금 급여 재심위원회 심사 청구기간 연장과 미납 및 과오납 기여금의 징수, 환급시 산정 기준 신설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문의 : 효-1286, 02-506-1286)

### 3. '99년 호국장학금 및 각군 장학금 신청안내

국방부에서는 '99년도 호국 장학금과 육·해·공군 장학금을 현역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99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1인당 50만원 지급되며 행정부대(기관) 단위별로 종합신청을 하여야 하고 송금은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문의 : 국방부-4829, 02-756-2097)

### 4. 공군 평론 원고 모집

공군대학에서는 공군 평론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 내용은 공군 운영 전반에 관한 논문, 항공전략·전술 분야 및 항공우주과학 분야, 군사정세 및 국제정세 분야, 공군교리 발전 및 공군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등입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이며, 약력 및 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 바랍니다.

(문의 : 자운대-4332, 042-870-4232)

• 성실한 의견을 주셨던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1월호 당첨자는 공군사관학교 행정처 심우영 상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알고 있지  
너의 그 작은 가슴에는  
눈물로도 씻지 못할 아픔이 있다는 걸  
너의 두 눈에는 이슬로도 닦지 못할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네 곁에 있는 동안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하게 빛나는 구슬 하나 주었지  
가장 밝게 빛나는 기쁨 하나 주었지

나 언제까지나 그 빛을  
간직하고 살리라. 내 사랑이여



공군창군 50주년기념 공군참모총장배

# 모형항공기대회

## 본선대회

일 자 : '99년 5월 16일(일)

우천시 : 5월 30일(일)

장 소 : 공군사관학교

주 최 : 공군본부

후 원 : 교육부, 과학기술부, 대한민국항공회

## 예선대회

지 역 : 서울 등 15개 지역

일 자 : '99년 4월 중

장 소 : 지역별 주관 공군부대

공군본부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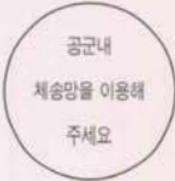
대한민국 공군 50주년  
REPUBLIC OF KOREA AIR FORCE 1948-1998



● 월간 공군은 공군인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독자엽서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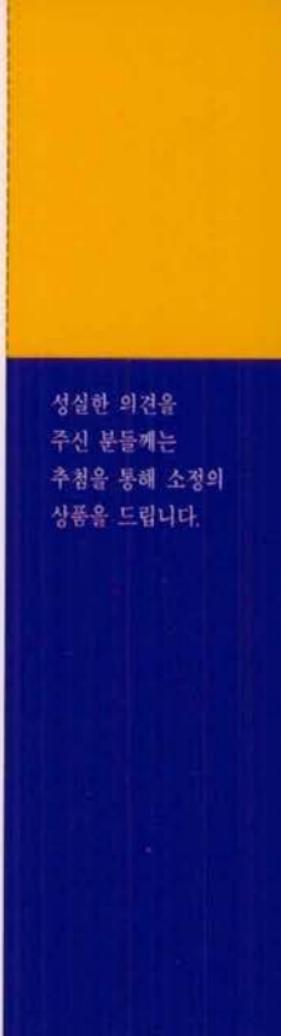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소속(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훈공보실장(문흥과장)  
발신 :

일간 **공군**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T효 6231-7, (02)506-6231-7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